

크리스마스가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부른다

크리스마스의 성육신이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저의 처가는 뉴욕 서부의 3 에이커의 넓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집 뒤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아내와 형제들이 어린 시절 뛰놀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웃음으로 바뀌어 메아리칩니다. 상록수가 길을 따라 줄지어 서 있고 가족의 따뜻한 추억과 분위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 밤, 눈이 쌓인 길과 나뭇가지 사이를 걸으며 내 마음은 ‘다가올 시대’에 대한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천재성을 독특하게 보여주는 수백만 개의 눈송이가 내 주변에 떨어지자 저는 다시 한번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단어 inspirer는 영어 단어 inspiration(영감)의 어원으로 문자 그대로 ‘호흡’으로 번역됩니다. 호흡 사이의 짧은 멈춤의 순간에 우리는

종종 숨겨져 있던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영감의 장소로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드러날 새로운 것을 엿보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눈을 통해 바라보면, 영감과 경이로움은 인간 영혼 본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가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막 10:15)”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 딜런 토머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경이로워하는 아이들 / 그것이 목표이자 끝이다.” 규제받는 다 자란 어른으로서, 우리는 일상 속의 경이로움을 간과하고 주로 거대한 것에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감정과 일을 구분하고, 아이들이 주변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는 겸손한 능력을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자존심, 실용주의, 자립심과 같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이 벗겨져, 아이의 경이로운 시선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이야기는 경이로움을 대하는 어린이와 같은 자세를 요청합니다. 왕다운 탄생에 대한 추측과 예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특별한 것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눈으로는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베들레헬을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의 거지들처럼 언덕 위의 목자들을 무시하고, 거대한 영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경이로움의 정점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겸손하고 놀라운 곳으로 다시 돌리면, 하나님은 가장

크리스마스 불을 밝히며

송인 목사(시인)

당신의 문 앞에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밝힙니다
어두움에 둘러싸여 차가운 겨울밤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문 앞에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밝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서 있던 나무며 풀들 위에
라이트를 걸어놓고 이곳에 서 있어야 할
의미를 매달았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이 지나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서로에게 불을 밝히게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분이 큰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작은 불들을
서로의 문 앞에 밝힙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불을 밝힙니다

혹시 이 겨울, 이 차가운 밤에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혹시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보면서
더 큰 빛을 깨닫고 방향에서 돌아설 수 있을까 봐

당신의 문 앞에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걸어 놓습니다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물: BestSaver.us | gospellmai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선: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책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물: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2:14)

기쁨! 감격! 희망! 이 넘치는 영성축제

교계연합 신년축복 부흥성회

성탄축하 주일: 12월22일 오전 11시

임직식(장로, 안수집사, 권사): 12월 22일 오전 11시

이웃초청 성탄감사 예배: 12월 25일 오전 11시

송구영신 예배: 12월 30일 밤 10시 30분

미주양곡교회 EM 사역자 청빙

지원자격: 목사, 평신도, 신학생, 평신도로 영어에 능한 분

서류제출: cyd777@hotmail.com

강사: 지용수 목사 (한국양곡교회, 중경 총회장)
일시: 2025년 1월 1일(수) 밤 - 4일(토) 밤 7시 30분
장소: 미주양곡교회 (213)500-8583 | (213)380-9377
51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40일 작정 특별새벽기도회: 12월1일 - 2025년 1월11일(미주양곡교회)

시 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교회, 시인, 문학평론가)

매년 12월 첫째 주 목요일은 축제의 날이다. 세계 한인기독언론협회(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에서 주최하는 신앙도서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이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감정 노출이 너무 심하다고 편찬을 줄지 모른다. 그러나 신앙도서독후감 공모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 나라에서 응모되는 세계적인 공모전이다. 이번 회에도 영국, 캘리포니아, 뉴욕, 위스콘신, 버지니아, 키르키즈스탄 등 여러 곳에서 작품을 보내왔다. 그뿐만이 아니라 응모한 사람들의 분포도 다양성이 형성되었다. 목회자, 사모, 직분자, 평신도, 등단작가, 교수, 선교사,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가 올해로 10회째다. 기간도 기간이지만 꾸준히 지속된 것이 기적이다. 종이책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보면 종합독서율이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도 4.5%, 0.6권이 줄어 들었다. 10명 중 6명은 일 년 동안 책을 1권도 읽지 않는다. 읽지 않는 것이 전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세월을 이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축하할 일이며 권위를 인정할 만하다.

책을 읽음으로 해서 얻는 유익이 상당하다. 세상,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조급한 정서를 다스리는 기술이 생긴다. 뼈뺏어졌거나 기울어진 태도, 관념, 사상이 치유되거나 객관적 시각이 형성된다. 인생관, 신앙관, 세계관에 변화가 일어난다. 시각의 다양성이 폭 넓게 작용한다. 당연히 지식의 습득이 쌓인다.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성을 갖추는 것은 논리적 개념이다. 독후감 공모가 10년의 세월을 이어가는 동안 단순 책 읽기 공모가 아니라 기독교 작가 등용문이 될 정도로 권위와 작품의 질이 높아졌다. 특별히 지난해 수상자 임지영은 올해 에피포도 예술과 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임지영은 앞으로가 더욱 주목받을 작가이다. 시 뿐만 아니라 수필을 다루는 감수성도 변독인다.

하나를 품으면/작은 점이 생긴다//하나를 말하면/그 점이 선이 된다//욕망과 절망의 물줄기/당신과 나 사이 생겨난 선(線)//저마다의 목소리로/당신과 나 사이 확고한 거리//침묵이 답은 아니다//다만,/그리움 깊어지면//수많은 물줄기/바다에 안긴다 • 경계(境界) 전문

단어, 단어 사이 절제된 정서로 가득 메우고 모든 시각이 멈추는 곳에 경계선으로 잇는 갈등의 폭이 무너지면 날, 모든 것을 끌어안는 바다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필자는 1회부터 심사위원장 자격으로 독후감을 심사하고 있으니 애정이 깊고 넓다. 늘 그랬듯 이번화도 가슴 뛰며 글자 하나하나에 눈길이 스몄다. 유독 눈에 띄는 응모자가 있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신나리(앨바인 주교회 CA)이다. 신나리가 읽고 응모한 도서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사디어스 윌람스, 두란노)'였다. 글을 이어가는 능력과 문장의 치밀함, 적용까지 독후감의 정석을 답아냈다. 게다가 작가가 갖추어야 될 필력과 구성, 상상력의 이미지가 수준 이상이었다. 미리 앞선 신나리 작가의 이름을 기억해도 좋을 것이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넘을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만나 깨어지는 경험들은 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다”(신나리 독후감 중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는 구원이 선포처럼 변독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를 방문한 이유가 풍성해졌다. '깨어지는 경험들'은 약한 것들이다. 약할 때 채워지는 강함이 은혜이다. 그 은혜는 포기하지 않을 능력이다. 뒤돌아보는 순간 1년의 마지막 정점을 지나고 있다.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살아야 될 계절이 코 앞이다.

www.epipodo.com

심박수와 평강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온을 갖자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선수들이 단체전 10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는 이유가 애국가에도 나온다고 한다. “하나님이 보우(Bow) 하사(下賜).” 하나님이 활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위트이다. 이번 양궁 경기를 보면서 특별히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 선수들이 활을 쏘기 전 1분당 심박수(bpm)가 화면에 떠서 해당 선수가 지금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아니면 안정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첨단 기술 덕분이다.

일반인이라면 긴장하고 떨릴 상황에서도 다수의 선수들은 안정적이고 평온한 심박수를 유지했다. 특히 양궁 개인 16강전에서 김우진 선수의 심박수는 78bpm이었고, 상대선수는 120bpm 전후를 오갔다고 한다. 20~39세 성인의 평균 심박수는 분당 60~80회 정도다. 김우진은 경기 후 자신이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80bpm 이하였다.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선 분당 심박수가 170회까지 치솟기도 했던 김제덕 선수는 60회에서 90회 사이로 평온함을 보여줬고 갑자기 벌이 날아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강심장이 되기 위해 우리 선수들은 상담과 마인드 컨트롤 같은 심리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한다(빌 4:6-7).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시험이나 대회를 앞두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실천에서는 지나치게 긴장하고 심장이 고동을 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다. 피아노를 전공한 딸은 교수들 앞에서 실기 시험을 칠 때 긴장을 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목사인 아빠가 기도도 해주고, 본인도 기도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마음이 답답하거나 평온하지 못해 시험을 잘 치루지 못할 때도 있었다. 목사도 다른 교회 가서, 특히 성도가 많이 모인 집회나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설교를 할 때 긴장하여 심박수가 올라간다.

2012년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다. 미국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815명의 대학

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자신에게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중 앞에서 말하는 공포’가 1등을 차지했다고 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도 순위가 높았단다! 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약 25퍼센트의 연주자들 무대공포를 경험한다고 한다. 그만큼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다. 그리고 보면 목사가 참 간이 큰 사람이다. 매주일 많은 분들 앞에서 30분씩 설교를 하니 말이다. (‘담대’는 원래 간[膽]이 크다[大]는 뜻이다.)

긴장하지 않고 혹은 긴장을 최대한 줄이고 침착하고 평온하게 준비한 것을 다 발휘하는 강심장을 가지려면 우리도 양궁선수처럼 심리훈련을 받으면 될까? 할 수만 있다면 훈련을 받게 좋겠다. 그러나 일반인이 양궁선수처럼 전문가의 체계적인 심리훈련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돈도, 시간도 많이 들 것 같다.

마음의 안정과 관련하여 ‘멍 때리기’를 생각해 보자. 멍 때리기 대회는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3시간 동안, 나중에는 90분 동안 가장 멍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주최 측이 15분마다 참가자의 심박수를 측정하고 현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심박수 그래프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2022년 멍 때리기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시작할 때 140에 가까웠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94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2023년 대회에서 1등한 배우 정성인은 61까지 떨어졌다. 이것과 비교해 보면 김우진 선수가 양궁 대회 현장에서 심박수 70대를 유지한 것은 정말 대단하다. 과거에 멍 때리면 집중하지 않는다고 흔히 갖는데, 이제 멍 때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무념무상의 고수라고 칭찬한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인들이 지나친 경쟁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멍 때리기 대회를 여는 것이라고 꼬집어 보도했는데, 부인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계속 뇌를 사용하면 오히려 생각은 뒤죽박죽된다고 한다. 그래서

일하고 나서 쉬는 게 아니라, 먼저 안식을 취하고 나서 일해야 한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주일이 일주일에 첫 번째 요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흔히 MZ세대라고 부르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템플 스테이’를 좋아한다고 하는 데, 이 역시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삶에서 명상과 쉼을 통해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위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나? 말씀묵상과 기도다. 성도가 세상과 스스로 차단하고 골방에 들어가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은 멍 때리기가 주는 심신안정의 효과를 넘어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신앙 훈련이다. ‘템플 스테이’에서 ‘템플’은 성경에서는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다. 기도의 골방이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템플)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모든 지각’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평강이다.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평강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다. 그 평강이 마치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뜻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옷을 찢긴 채로 많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 채워진 채로 깊은 옥에 갇혔다. 상처는 밤이 되면 더욱 아픈 법이다. 쓰러린 상처의 고통, 비좁은 감옥 안의 열기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터인데, 그들은 침묵 같이 캄캄한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고 계셨음이 분명하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자신의 일기장에 “나의 일생 중 가장 영광스런 날”이라고 기록한 날이 있다. 어떤 날일까? 목사가 된 날,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인 집회의 날? 아니다. 영국에서 목회와 교수 생활을 한 웨슬리는 미국에서 3년간 선교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실패했다. 낙심하여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항해 중에 엄청난 풍량이 불어왔다. 죽을 것 같았다. 그런데 배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와 다가가 보니 그들은 모라비아 신도들이었다. 그들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가 없었다.

(9면으로 계속)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성탄 축하 예배

- 성탄주일 (12/22) 오전11시
- 성탄축하 (12/24) 오후 7시



담임 이 동 진 목사

성 화 장 로 교 회

www.sunghwachurch.org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Normandie Ave. + 158th St)

어떤 사람이 산타클로스로 이름을 개명하려고 신청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의 상징은 산타클로스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편으로 잔뜩 부풀려진 산타 인형이 손을 흔듭니다. 꼭 ‘난 아냐. 난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안은 몇몇 집의 마당에 차려진 베들레헴 마구간의 정경입니다. 마리아, 요셉, 짐승 몇 마리... 좀 더 비싼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싸나 비싸나 빠질 수 없는 것은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 아기 예수입니다. 한 번은 동네 근처에 차를 멈추고 어떤 집의 마당에 차려진 성탄장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심은 아기 예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아기로 오신 예수

본문은 들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가 나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구주가 나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자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넣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눅 2:12) 세상을 구원할 메시야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야가 보자기에 싸여있는 어린 아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기라면 남을 구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도 누군가에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키는 너무 작아서 말이 밥을 먹는 구유도 넘쳐하고, 여행 중의 마리아가 치밀하게 출산 준비를 못했음에도 아이를 싸안을 보자기는 충분할 정도로 아기는 작았습니다. 젊은 엄마의 품에 안겨 보호를 받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니.... 너무 작고 너무 약해서 예수님’이라는 호칭도 어색하지 않

았을까요? 그런데 좀 뼈뺏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성경의 기록은 이 아기가 작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 작은 생명의 탄생을 위해 동원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우선 동방에서는 신기한 별이 빛을 발하며 떠올랐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강렬한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핏 덩어리 하나에도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감기 바이러스에 한 주간을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너무도 약합니다. 한 해 내내 경제적인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로 가슴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자연 앞에도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바람이 조금만 심하게 불어도,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우

없이 강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 제법 압니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말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행 4:13) 그는 배움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었던 앓은뱅이를 고칩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학문에 뛰어나고 남이 부러워하는 신분을 가진 바울은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그의 안에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0)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성탄에는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약속하십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작고 여러계만 보이는 그 아기는 결코 작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 주님을 마음에 품은 자에게 다시금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절대로 약하지 않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성탄에 담긴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 4:7)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값싼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귀합니다. 그 안에 보배되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옥여썹을 당하여도 싸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더러운 말 밧그릇이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작은 어려움에도 근심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인하십시오. ‘주님, 내 구주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 더 이상 약하지 않다.’ 이런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가진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hyouk@msn.com

성탄특별설교

아기 예수

누가복음 2:8-14

권혁천 목사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 담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48회 총회장)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곤 마침내 하늘에 천사들이 가득히 섭니다. 찬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눅 2:13) 지체 높은 동방의 박사들이 마침내 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귀한 보물을 내 놓으며 경배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나 해야 하는 인사가 아닙니까?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예수가 어리고 작기 때문에 약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강했고 위대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2.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약해지는 것이 두려운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강해지려고 돈을 모읍니다. 권력을 쥐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심장을 막는 조그마한

리는 우리의 평생에 이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삶이었지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인생이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년전 테레사 수녀가 미국의 한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구의 흉악범들이 작고 강마른 수녀를 둘러쌌습니다. 한참을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녀가 자리를 떠나고 리포터들이 죄수들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강했습니다.”, “수녀님은 동정심이 참으로 컸어요.”, “수녀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여자가 자기보다 두 배나 큰 사람들에게 크다고, 강하다고 느껴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품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3. 강한 인생

예수님을 품은 인생은 예외

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완고하고 잔인했던 유대인 오천 명을 화개로 이끌었습니다. 이 일로 소동이 일어나자 대제사장이 그를 불러 법정에 세우고 심문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권력도 학벌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가장 강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좀 압니다. 신약성경에서 바울보다 더 강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되고 싶었던 랍비가 되었어도 그렇게 강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람으로 세워됩니다. 주님을 품은 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3)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교회 행사 | 각종 집회

• 부활절 성탄절 안수식 •

배너 & 현수막 맞춤형 주문 제작 업체
당일 제작 및 배송 | 무료 디자인 제공

influsign.com info@influsign.com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량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 자녀교육 및 결혼 가정세미나
* 감사나눔 세미나 및 간증설교

[세 자녀가 하버드와 동부 명문대학에 진학, 졸업 후 전문직 직업과 20대 중반 결혼시킨 경험과 노하우 공유]

< 감사 이훈구 장로 약력 >

* 목회학 석사 및 선교학 박사

* G2G Mission Center (G2G선교회) 설립 및 대표(2013.1 - 현재)

* 감사나눔 공동체 :

감사나눔리더(임원) (2023.8-현재)

* 저서: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작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세미나, 간증설교 문의 : g2gmission@hotmail.com

교회인쇄물 · 현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광고 문의

(323)665-0009 | (718)886-4400
info@chpress.net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구약주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사무엘하 23:13-17)
- 신약주해: 개혁주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 논문제목: 엔데믹 시대 교회 밖 성도들의 회복과 양육전략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레위기 16:1-10 제목/광야로 보내진 아세셀 염소 신약 - 요한복음 12:27 제목/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전동진구약주해.pdf)
-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5년 3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5년 3월29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는 49회 총회기간(5월 27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5년 5월 26일(월)~27일(화)
장소: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제출서류

-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5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소속교회장 추천서 1부
- 소속교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이력서(약력과 자재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명함판 사진 2장
-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전동진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5,26)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전동진목사 (Rev. David Chun)
주소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전화 : (856) 359-5345 / 이메일 djchun5882@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김요섭목사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고시부 서기 : 전동진목사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권혁천 목사
서 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동진 목사

목사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айд장로교회)



목사님 참 행복해요!

목사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재정적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구제

의 손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 건축하여 안정을 찾는 것 등일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삶일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쁜 일이 분명하나 최고의 기쁨은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내 가슴이 크게 뛰는 감동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나는 건축을 하고서 뛰지 않는 내 가슴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였었다. 오히려 우리 교회 헌당 예배 시 축사하러 온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는데 반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내 가슴이 뛰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목사의 기쁨은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

다. 지난번 주일 저녁 중보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권사님 몇 분이 나를 보고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움직이지 않던 내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속으로부터 나왔다. 아 행복하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왔다. 목사로서 양들인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행복해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구나!

그리고 그때야 로마 옥중에서 쓴 사도바울의 말이 마음으로 이해되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도 유익함이라 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였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빌립보서 1:20-26)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이다. 그때 그는 차라리 죽어 천국에 들어가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편한 삶도 좋지만, 하루라도 본인이 더 살면 이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자기 목숨 같이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소명 받은 목사로서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사도바울의 마음으로 나의 목회 여정을 마칠 것을 다짐하여 보았다.

david2lord@hotmail.com

목회단상



곽덕근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담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가족은 지금은 거봉 포도로 유명한 천안 입장에서 서울로 이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국수가게를 했고, 몇 년 지나서 가게를 좀 더 큰 곳으로 옮기면서부터는 떡 방앗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옆 가게까지로 넓혀서 쌀가게를 겸해서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참으로 마음이 곱고 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오면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떡도 드리고, 쌀을 뒷박에 담을 때에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주는 자

가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 각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는 자의 복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우리가 우리의 작은 손으로 주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그 크신 손으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 15:10에서 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

을 품지 말고 풍성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사와 우리 손으로 하는 바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짐승도 나무와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자가 복되다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내가 ‘섬유근육통’의 질병으로 한참 아파하던 2020년



그런데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 습니다.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맑고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고인물은 악취가 나는 썩은 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몸의 생명인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 몸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가족끼리 서로 선물을 하지 말고, 그 선물 할 돈을 모아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 가정은 성탄 시즌이 되면 주위에 계신

어려운 목사님 가정에 비록 많지 않지만 물질을 드리며 그것이 연말연시에 조그만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가정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두 분의 목사님께 작은 정성을 모아 드렸습니다.

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치료차 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치료비에 보태라고 주셨나보다.” 그런데 이 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신앙인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마지막 고별인사를 하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행 20:35)고 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앓은뱅이 걸인에게 줄 은과 금은 없었지만,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으로 앓은뱅이를 걷고 뛰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주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고, 예수님께 받은 축복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축복의 말을 주고, 사랑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vkwak@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 예배: 오후 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 6:00(토)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청년부예배: 오후 12: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8: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 오전 05:45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문간: 오전 10:00 화,토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화: 오전 6:00 (월-토)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오전6:00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영양예배: 오전 11:15
금요찬양: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 오전 8:30
새벽기도: 오전 5:30(매주 1주, 3주)

베이스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 오전 5:45
전교인복합선언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일 새벽,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영양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9:00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며 연말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는, 연말 우울증이라는 흔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특히, 멀리 바다 건너 살아가는 대통령 탄핵과 이로 인한 혼란을 바라보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기쁜 성탄을 맞이해야 할 마음들이 밝지가 않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만사가 우울할 따름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것이, 대통령이나 야당의 행하는 일들이나, 어찌 그렇게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동물들의 이전투구 같은 모습이다. 결국, 그 폐해는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생의 존귀함이나 복됨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되어드는 것이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된다.

성탄의 당연한 기쁨

오는 성탄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에는 휴대전화로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거엔 손수 성탄 카드를 만들어 보내며 성탄 시즌을 즐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의 성탄 카드는 풀로 글씨를 쓰고 반짝이 가루를 뿌리거나, 학교 미술반 형들이 교문 앞에서 강매하는 그런 카드들이었는데, 지금의 세련되고 기능 장착된 그림 사진들과 비교가 되지 않아도, 이모저모 정성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러한 추억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본다. 성탄 시즌에 앞서 방학이 시작되면 교회에서는 성탄 발표회 준비가 한창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행사 준비를 넘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간 들이 되었다. 서로 퍼진 라면 국수를 먹으면서, 빠지고, 싸우고, 토라지고, 찾아가고, 데려오고, 달래고, 그러면서 성탄의 날들을 맞이한다. 밤새 교회에서 보내다가, 새벽송을 돌고, 다시 졸음에 빠진 채 성탄축하예배에 참여

하며 살았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소개말이 성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 출입에 멈춤이 없었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 교회에 출입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다. 이 꾸준함과 헌신이 우울함을 이기고 기쁨을 회복하는 신앙인의 큰 자산이 되는 것이다.

신앙의 양과 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라는 양이라는 점이다. 특히, 한 번의 예배보다 두 번의 예배, 그리고 꾸준히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더 큰 복이다. 교회에는 ‘지킴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섬기고,

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겉옷을 벗어두듯이, 아버지의 집 교회에 일정하게 나아가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회복의 과정을 지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물리적으로도 교회 가까이에서 사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게 된다. 주님의 교회와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기도와 헌신의 삶을 살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하는 삶이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주님을 기다림

성경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는 성전에서 84년 동안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다. 그녀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사모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긴 기다림이었다. 그녀의 신앙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으로 이어졌다. 우리도 이러한 기다림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 신앙은 기다림이며, 기도도 기다림이다. 응답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주의 교회에서 성탄의 당연한 기쁨을

-연말우울증, 교회중심, 기다림-

성경은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가? 성경은, 위기와 고난의 때가 찾아올수록 세상에 소망 두던 것들을 내려놓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것을 말씀한다. 영원한 천국 소망만 가지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회복과 소망을 취하면, 자연스레 삶의 질서와 내용들이 회복된다는 의미이다. 예수님께 피하고, 교회에 피하고, 말씀 듣는 자리로 피하며 나아가 갈 때, 영혼의 회복이 삶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 많은 인생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며 선물이다. 마땅히 당연히 그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한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야 한다. 결국, 인생의 죄와 욕심이 만들어내는 삶의 고단함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없다. 오히려 성탄은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 앞에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성탄의 추억, 교회

움츠리지 말고 찬송과 캐럴로 이 계절의 분위기를 밝히며 살아야 한다. 과거 행복했던 성탄의 추억도 떠올리고 다가

하면서 하루밤을 꼬박 지새우게 된다.

세월이 많이 지나도, 교회와 함께했던 성탄의 추억들은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연말 우울함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다시 원형으로서의 교회, 예배, 말씀, 기도와 같은 본질에 좀 더 착념하기를 권해본다. 특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만드어지는 교회 중심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강권한다.

참 평화의 왕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 이러한 친밀함은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정말 좋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 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 선지자 안나는 결혼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전을 중심으로 헌신

항상 주님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꾸준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평화와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쓰임 받았던 교회 중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은 따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본성의 죄를 따라,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본성의 죄를 따라,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본성의 죄를 따라,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꾸준히 목욕탕 교회로

인생의 참된 변화와 성숙을 계속해서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 성도는 교회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 죄의 때 많은 인생의 티끌들을 계속 씻어내지 않으면 참된 기쁨의 변화를 맛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교회 말고 그런 죄를 꾸준히 씻고, 꾸준히 변

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

어디서 기다릴 것인가?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도하며 기다렸듯이, 우리도 오늘날 주의 교회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문다고 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나타난다. "내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 구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응답하시는 장면에서 나온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자신의 이름, 눈,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셨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 주의 교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 있다. 연말의 우울함을 교회 가운데서 함께 이겨내며,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목사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된 목사입니다. 축도하는 목사님들 보면 다 수식어가 다양한데 무엇이 성경적 축도인지 헷갈립니다. 1) “이제로부터 영원토록”이란 용어를 사용할수 있는지요? 2) 축도의 대상이 비지니스나 총회나 노회도 포함하거나 불신자들에게도 가능한 것인지요.
-가든그로브 조셉목사

축도의 수식어

A: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교회들이 사용하는 축도는 고후 13:13절을 근거로 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사도적 축도라고 합니다.

축도할 때 축도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수식어를 많이 부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길게 하면 축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짧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고후13:13 절의 축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질문한 대로 어떤 목사님은 축도를 할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이란 수식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고후 13:13 절에도 영원이란 말이 없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이란 수식어가 성도적 회중을 대상으로 사용된 예는 없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이란 용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래의 두 구절이 확실히 증명합니다.

벧후 3:18 “오직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르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유다서 1:25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축도의 대상은 너희 무리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교회의 어린 자녀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축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엡 6:24)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본 개혁장로회 신학교의 이창배 교수가 축도에 대해 강해할 때 축도의 대상은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도의 자리에 없는 대상을 포함시키거나 무생물체와 불신자를 포함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바울의 축복은 가정과 사업체나 직장과 노회, 총회, 대한민국, 세계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축도의 대상은 축도의 자리에 없는 대상을 포함 시키거나 무생물체와 불신자를 포함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피종진 목사 12월 부흥성회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영예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제242차 해외성회(242nd Overseas Assembly)

미국(U.S.A) 뉴욕서경교회 주일부흥성회(교회성 목사)
미국(U.S.A) 사단법인 7천기독교(이사장 권태일 목사, 1대 대표총재 김준곤 목사, 2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뉴욕 기도회, 동역 뉴욕 기독교방송
미국(U.S.A) 뉴저지 지역
미국(U.S.A) 뉴저지 한인미가 기뻐하는 교회(이재삼 목사)
미국(U.S.A) 뉴저지 한인미가 기뻐하는 교회(이재삼 목사) 부흥성회 및 Pastor's Seminar
미국(U.S.A) 한인미가 기뻐하는 교회(이재삼 목사) 부흥성회 및 사단법인 7천 기도를 뉴저지 기도회

12.1(주) 2(월) Special Blessing Event Class
텐트메이커선교회(주)나인 6층 (대표 남보석 목사)
오산리치자살기독교금식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 With부흥사협의회(대표총재 정사무열 목사) 010-7733-9106
서울 새생명교회(변용성 목사) 010-2074-5398
인천 주사랑 열방교회(백사량 목사) 010-2272-9119
서울대학교 동문 송년 MT 장소 : 서울 동대문 메리엇 그리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3총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부흥사회(대표회장 박경근 목사) 010-2202-0691
서울 명동 밀레오로호텔 3층 주최 : (사)세종교회(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서울 풍성한 교회(양인호 목사) 010-3289-3991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제243차 해외성회 (243rd Overseas Assembly)

16(월)~17(화) 낮 일본(JAPAN) 東京神學校 Tokyo Theological Seminary
(학장 정성대, 대학원장 피종진 목사) 日本政有認可
일본(JAPAN) 東京(日韓文化交流協會 東京大會
Japan, Korea, China Exchange Association Conference in Tokyo
19(목) 낮, 저녁 일본(JAPAN) 東京 우에노공원 대중전도전회
(동경 우에노 사랑의교회 김태실 선교사 및 일본선교 자원봉사단)
일본(JAPAN) 日本 韓國 中國 문화교류협회 Narita 大會 및 특별성회

21(토) 오전 서울 주님의교회(배성수 목사) 010-3065-7825
주최 : 직은자살기독교(대표회장 양유식 목사)
23(월) 오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주최 : (사)한국기독교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010-9068-9197
기독교여성선교 창간22주년기념예배 Blessing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20층
김도 강령교회(조경숙 목사) 성탄절 연향예배 010-8222-1992
23(월) 오후 천안 감리교회(윤재민 목사) 010-3890-5991
25(수) 오후 남서울중앙교회(원로 피종진목사, 담임 여천근목사)02-3411-9191송구영신축복대안수기도성회
26(목)~27(금) 31(화) 지정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말레이시아에서 성탄으로 마음을 여는 젊은이들”

무슬림이 대다수인 말레이시아에 성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성탄절을 축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형 몰이나 세계적인 체인식 호텔에 가면 서구적인 성탄 장식을 거대하게 해 놓았습니다. 성탄 트리와 다양한 성탄절의 장식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말레이시아 사회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 장식뿐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기 원할 때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 알아

낼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식 앞에서 히잡을 쓴 전통 무슬림 젊은 여성들과 회교 종교적 틀에 얽매었던 청년들이 어색하지 않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12월에 서구적인 성탄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서구적이고 기독교적인 성탄이 무슬림 사회에 서서히 스며들고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변화이

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로제 4차 로잔 대회에서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변화를 “People on the Move”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이주민 현상을 통틀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전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난민, 기회를 찾아 움직이는 이주민, 주재원과 기술자, 유학생과 사업가 등등. 그리고 그런 움직이는 사람들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



니다. 인구의 분포도가 극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선교적이고 복음적인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무슬림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24년도 성탄절에 이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이 말레이시아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서로의 전통과 종교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친한 친구가 되고 자기들의 문

화를 서로 교환합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는 세계 전역에서 유학생들과 기회를 찾는 젊은 일꾼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현지의 젊은이들과 쉽게 친구가 됩니다. 그들끼리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친하게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상은 아주 자연스런 모습입니다. 필리핀과 호주, 유럽과 미국에서 성탄절의 가치를 알고 살아왔던 젊은이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자라난 무슬림 젊은이들과 성탄을 교류하고 그들의 마음에 호기심

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탄의 유래를 더 알고 원하는 사람에게 스마트폰 구글은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다가 소모임에서 복음을 같이 나눌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숨은 예배자가 되는 일들이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People on the Move의 영향입니다. 이런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관세는 후퇴 없다”…美 국민은 관세 정책 27%만 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기업들이 여러 통로로 트럼프 인수팀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거의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WSJ는 “기업 경영진들은 트럼프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및 기타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약속한 가파른 관세에서 면제받기 위한 로비 방법을 두고 머리를 굴적이고 있다”며 “트럼프 팀은 기업 컨설턴트들에게 트럼프가 취임 뒤 관세를 자유롭게 사용하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마약 반입을 막지 못할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선포한 상태다. 또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 통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상승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 나오는 전언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의 한 로비스트는 트럼프의 관세 언급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설득할 만한 컨설턴트는 없다고 전했다.

WSJ는 트럼프가 그동안 자신의 관세 정책을 늦은 오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는데 가장 가까운 참모들에게조차 미리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등과 논의하지만, 정작 관세정책을 소셜미디어에 전격적으로 발표할 때면 거의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국민은 트럼프와 관세 정책에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미국 CNBC방송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관세 인상이 내년 정책에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반면 관세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42%였다. 관세는 트럼프의 여러 정책 중 2001년 1월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 사면(26%) 다음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정책은 국경 통제로 60%의 지지를 얻었다.

美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중국 해킹에 “훨씬 더 강력히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최근 중국이 배후로 거론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강력

한 대응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종식을 거론하며 미국이 ‘백지수표’와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전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왈츠 의원은 15일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해킹해 정치인 등의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는 최근 당국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왈츠는 “우리는 지난 몇 년 간 사이버 분야에서 더 나은 방어만 노력해왔다”며 “상대방의 공격과 우리의 방어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로 공격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계속 우리의 데이터를 훔치고 염탐하는 민간과 국가 행위자에게 더 비싼 비용과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왈츠는 “그러면서 중국이 배후인 해킹그룹 ‘볼트 타이푼’을 거론하며 ‘우리 인프라, 수도 시스템, 전력망, 심지어 항구에 사이버 폭탄을 설치하는 행위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왈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쟁은) 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전쟁이다. 인간에 대한 고기 분쇄기”라며 “트럼프는 계속된 대학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전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왈츠는 지난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당선인, 정부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와 함께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만났다. 오르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밀접한 관계다. 왈츠는 “오르반은 러시아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고, 트럼프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살이 중단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오르반은 트럼프와 면담한 뒤 푸틴과도 통화했다고 밝히며 “휴전과 평화 회담에 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리아 반군 “과도정부 3개월 운영” 이스라엘은 혼란 틈타 시리아 맹목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한 반군이 새 정부 구성을 위해 3개월간 과도 정부를 운영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반군은 내년 3월 1일까지 운영할 과도정부의 임시총리로 무함마드 알바시르를 추대했다. 바시르는 반군의 주축인 하야트타흐리트알람(HTS)의 행정조직 수반으로 시리아 북서부 이德利브를 통치해 왔다. 바시르는 “이제는

국민이 안정과 평온을 누릴 시간”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시리아 안정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HTS의 주장 아무 무함마드 알출라니는 서방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 알출라니는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전쟁은 없다. 시리아는 전쟁에 지쳤고 또 다른 전쟁을 벌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우리는 국가 재건과 안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은 반군이 포용적 과도정부를 구성할 경우 HTS를 테러단체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은 포용적이며 비종파적인 거버넌스로 이어져야 한다”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구성되는 미래의 시리아 정부를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주요 군사시설에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뒷배였던 이란도 손을 쓰지 못하는 지금을 이란 등 적대 세력의 힘을 빼놓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육해공군을 총동원해 지난 48시간 동안 시리아 전역을 약 480차례 폭격하며 “누구든 아사드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는 그와 같은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전기톱 개혁’ 1년… 물가 안정 이뤘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집권 1년을 맞았다. 전기톱을 들고 방만한 경제를 수술하겠다고 약속한 그는 실제 공공재정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부처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충격 요법’을 감행했다. 그 결과 물가상승률이 20% 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등 경제지표상 효과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절반 이상의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도 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2월 26%였던 전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올해 10월 2.7%까지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를 기록하던 재정적자도 올해 상반기 흑자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밀레이의 과감한 개혁 조치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학 교수이자 방송 진행자로 정계의 ‘아웃사이더’였던 밀레이는 수십년간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좌우 세력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며 지난해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끝에 권력을 잡았다. 자유시장주의자를 자처한 그는 취임 이후 각종 개혁 조치를 쏟아냈다.

공공재정 지출은 GDP의 44%에서 32%로 칼질했다. 공무원 급여와 각종 보조금 등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18개였던 정부부처를 8개로 줄였고, 3만명 이상 공무원이 해고됐다. 달리 대비 아르헨티나 폐소의 가치를 반토막 내며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간 격차를 줄였다. 은닉 재산에 대한 대규모 면세 정책도 실시했다. 그 결과 물가상승률이 떨어졌고 재정은 소폭 흑자로 돌아섰으며, 암시장·해외 은행에 예치됐던 달러들이 양성화되며 환율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었다. 밀레이는 지난달 한 행사에서 “불황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

이 성장”이라고 선언했다.

컨설팅업체 메틀리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이그나시오 라바퀴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물가상승률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하락했다”며 “이는 밀레이의 인기를 지속시키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실제 극단적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밀레이 지지율은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은퇴한 교사인 버지니아는 “개인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고 저축한 돈도 다 썼지만 (밀레이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며 “항상 이 나라가 모든 것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밀레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레이는 극단적인 연행을 자주 해 ‘괴짜 정치인’으로 각인됐지만 주요 이슈에 대해선 실용적으로 접근했다고 FT는 평가했다. 중앙은행을 불태우겠다는 대선 공약을 보류했고, 중국 정부에 대한 극렬한 반감 표시도 자제했다.

캐나다, ‘인권침해’ 中관료 제재…中 “난폭한 내정 간섭”

캐나다가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파룬궁 등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전·현직 중국 관료들을 제재하자 중국이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캐나다 정부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인권의 간판’을 걸고 중국을 모략해 불법 제재를 가하고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면서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인권 존중과 보장을 고도로 중시한다”면서 “자국 인권에 문제가 있고 원주민이 지금도 체계적 차별과 불공정 대우를 받는 캐나다가 다른 국가를 모략하는 것은 세간의 웃음거리”라고 비난했다.

주캐나다 중국대사관도 10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 외교부는 ‘인권’을 빙자해 중국에 누명을 씌우고 불법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중국에 대한 심각한 내정 간섭이자 악질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장위구르 지역과 티베트 지역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있으며 파룬궁은 반인류·반사회·반과학적인 사이버 종교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이날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의 전·현직 관료 8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캐나다의 신장과 티베트, 파룬궁 수련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 침해를 깊이 우려한다”며 “중국 정부가 조직적 인권 억압을 끝내고 국제적 인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2017년 이후 신장에서 100만명 이상을 임의로 구금했다는 보도를 깊이 우려한다”면서 “그중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티베트인들은 강제 노동, 자의적 구금, 종교·신앙·표현·이동·결사의 자유 제한 등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면서 “중국은 1999년부터 임의 체포, 강제 노역, 고문을 통해 파룬궁 수련을 근절하려 해왔다”고 밝혔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25. 김윤정 (1865-?)

김윤정은 1865년경에 한국에서 김해 김씨 가정에서 태어났다. 동년배인 김윤국과 결혼한 그는 세 자녀를 두었다. 그즈음 그는 월출동(Woal Chool Dong)에서 거주했다. 월출동이라면 오늘날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인 것 같다. 하와이 꿈을 꾸 김윤정은 해외로 이주하기에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40세인 1905년 4월 27일에 가족과 함께 일본 고베에서 하와이행 선박 시베리아에 승선했다. 그들은 1905년 5월 8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하와이로 향하면서 김윤정은 영문으로 Kim Youn Chong이라고 표기했으나 Kim Yoon Chong 또는 Kim Yoon C.로도 사용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1905년 5월에 김윤정과 그의 가정은 하와이 오아후섬 와히아와 농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에 이주한 지 2년이 되던 1907년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던 백인 교회인 제일감리교회에서 감독 얼 크랜스톤 목사의 사회로 미국 북감리교 제2회 하와이 연회가 개최되었다. 크랜스톤 감독은 오아후섬에 있던 와히아와 농장에서 노동하는 한인 노동자를 위하여 임정수를 지방전도사로 파송하였고, 김윤정을 권사로 파송하였다. 임정수는 그곳에 있던 배영의숙에 출석하던 45명의 한인을 중심으로 그해 9월에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를 개척했다. 그해 본 교회에 회계로 김국경이 섬겼고, 양흥화가 속회를 인도했다. 이듬해 1908년 제3회 하와이 연회에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의 통계가 수록되지 않아 교회 교세를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런데 1907년에 김윤정과 그의 가정은 같은 오아후섬의 예와에 있던 예와 농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인 1908년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북감리교 제3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하와이 호놀룰루 제일장로교회에서 데이비드 H. 무어 감독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그해 감리사는 존 W. 와드만 목사였고, 한국어권 교회를 총괄한 한인 총무는 홍치범 목사였다. 제3회 하와이 연



김윤정, 아내 김윤국, 딸 김노디
(Winifred Lee Namba Album)

교연회는 하와이 오아후섬 예와 농장에서 노동하는 한인 가정으로 구성된 한인감리교회에 김유순, 김윤정 그리고 이선일, 세 명의 한인 사역자를 파송하였다. 김유순은 작년에 이어 예와 한인감리교회 지방 전도사로 파송되었고, 김윤정은 이선일과 함께 예와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받았다.

김윤정이 예와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부임할 1908년 1월 당시 예와 한인감리교회 교세는 학습 교인이 54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27명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4명이었으며, 세례를 받은 자가 2명이었다. 그리고 본 교회에 주일 학교가 있었고, 주일 학교 직원과 교사가 10명이었으며, 이 중 6명의 교사가 본 교회 세례 교인이거나 학습 교인이었고, 주일 학교에 등록한 학생이 119명이었고, 이 중 81명의 학생이 본 교회 교인이었고, 매우 평균적으로 출석한 학생이 85명이었다.

1908년이나 늦어도 1909년 2월 이전에 김윤정과 그의 가정은 오아후섬의 와히아와로 다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1909년 3월 3일부터 7일까지 존 T. 존슨 목사가 시무하는 하와이 호놀룰루의 백인교회인 제일감리교회에서 미국 북감리교 제4회 하와이 연회가 감독 찰스 W. 스미스 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그해 감리사는 작년에 이어 존 W. 와드만 목사였고, 한인 총무도 홍치범이었다. 본 연회는 와히아와 지방 한인을 위하여 김유순과 김윤정을 파송했다. 김유순은 와히아와 지방뿐만 아니라 와이파후 지방과 아리 지방을 순회하며 전도하는 순회 전도사였다. 그리고 김윤정은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 권

사로 파송되었다. 그해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에서 수고한 다른 사역자가 여러 명이 있었다. 김경기와 이준익은 회계였고, 송치순과 이정근은 속회를 인도하였으며, 박정수는 주일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김윤정을 파송한 1909년 3월에 개최한 제4회 하와이 연회록에는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가 소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김유순이 순회 목사로 파송 받았는데 와히아와를 포함하여 와이파후와 아리를 담당하였으므로 와이파후 한인감리교회 통계에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와 아리 한인감리교회 통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와이파후 순회 구역 통계에 따르면 1909년 3월에 학습 교인이 19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9명이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8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유아세례 교인은 없었다. 주일 학교가 두 곳에 있었고, 주일 학교 교사와 직원이 6명이었는데 이중 교회 등록된 자는 4명이었으며, 등록한 학생은 29명이었는데 이중 10명이 교회 교인이었고, 평균 25명이 출석하였으며, 이 중 10명이 신앙고백을 하고 믿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600달러에 해당하는 예배당이 한 곳에 있었다. 지난 한 해 지출 결산이 60달러였는데 이중 선교 항목에서 해외 선교 하에서 회회를 위하여 1달러, 내지 선교/교회 확장 하의 회회를 위하여 5달러, 주일 학교에 2달러를 지급하였고, 교육 항목에서 교회 일반 교육과 어린이 기금으로 각각 1달러를 지출하였고, 주일 학교 항목에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1달러를 지출하였다. 흑인보조회와 미국성서공회에 각각 1달러를 후원하였고, 부인 내지선교회에 2달러를 보냈다. 기타 지출이 45달러였다.

1910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미국 북감리교 제5회 하와이 연회가 개최되었다. 본 연회를 사회한 감독은 에드윈 H. 휴즈 목사였고, 그해 감리사는 작년에 이어 와드만 목사였다. 제5회 하와이 연회에서 휴즈 감독은 김윤정과 김유순을 와이파후 순회구역에 파송했다. 김윤정을 작년에 이어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로 파송했고, 김유순 목사를 와히아와를 포함하여 와이파후와 아리를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순회 목사로 파송했다. 그러므로 김유순 목사가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를 방문하지 못할 때 김윤정 권사가 예배와 목회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해 주일학교 교사는 조운여였다.

1910년 3월 제5회 하와이 연회록에 따르면 와이파후 순회 구역의 교세는 지난 해와 비교할 때 교인수는 증가했으나 헌금액은 감소했다. 학습 교인이 17명이 많은 36명, 세례 교인이 12명이 많은 21명이었고, 지난 한 해 동안 5명이 적은 3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유아세례 교인은 작년에 없었으나 4명에게 유아세례를 주었다. 주일 학교는 지난 해와 같이 두 곳에 있었고, 주일학교 교

사와 직원이 1명이 적은 5명이었는데 이중 교회 등록된 자는 1명이 많은 5명이었으며, 등록한 학생은 25명이 많은 54명이었는데 이 중 35명이 많은 45명이 교회 교인이었고, 평균 13명이 많은 38명이 출석하였으며, 이 중 5명이 많은 15명이 신앙고백을 하고 믿는 자가 되었다. 작년에 없던 엠워스 청년회가 한 지역에 조직되어 회원이 15명이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이 600달러에 해당하는 예배당이 한 곳에 있었다. 지난 한 해 지출 결산이 44달러가 적은 16달러였다. 이중 선교 항목에서 해외 선교 하에서 회회를 위하여 작년과 같은 1달러를 지출하였고, 내지 선교/교회 확장 하의 회회를 위하여 7달러가 많은 12달러를 지출하였으며, 교육 항목에서 교회 일반 교육에만 1달러를 지출하였고, 주일학교 항목에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1달러가 많은 2달러를 지출하였다. 흑인보조회와 미국성서공회 그리고 부인 내지선교회에는 후원하지 않았다.

1911년 1월에 개최한 제6회 하와이 연회에서 휴즈 감독은 김윤정을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했다. 김윤정 외에도 양흥업을 파송하였으나, 그 후 양흥업 대신에 유문찬이 권사로 섬겼다. 그해 연회록에는 파송 목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김이제 목사가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에서 사역하였고, 김병애가 속회를 인도하였고, 정운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다.

그해 하와이 연회록에 나온 와이파후 순회 구역의 교세를 작년 통계와 비교할 때 교인 혼련에 치중했고, 주일학교가 성장했다. 학습 교인이 11명이 적은 25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9명이 많은 30명이었고, 지난 한 해 동안 9명이 많은 12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작년과 같은 4명에게 유아세례를 주었다. 주일학교는 한 곳이 많은 3곳에 있었고, 주일학교 교사와 직원이 1명이 많은 6명이었고, 등록한 학생은 2명이 많은 56명이었다. 작년과 달리 교회 등록된 교사나 학생, 평균 출석한 학생수와 믿기로 신앙 고백한 학생수는 개재하지 않았다. 엠워스 청년회가 한 곳이 많은 두 곳에 조직되어 회원이 13명이 많은 28명이었다. 작년과 같이 600달러에 해당하는 예배당이 한 곳에 있었고, 작년에 없는 수리비로 24달러를 지출하였다. 지난 한 해 지출 결산이 12달러가 많은 28달러였다. 이중 선교 항목에서 해외 선교 하에서 회회를 위하여 지출하지 않았고, 내지 선교/교회 확장 하의 회회를 위하여 13달러가 많은 25달러를 지출하였고, 교육 항목 대신에 선교부 항목으로 변경된 가운데 교회 일반 교육에만 작년과 같이 1달러를 지출하였고, 주일학교 항목에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1달러가 적은 1달러를 지출하였다. 작년과 같이 흑인보조회와 부인 내지선교회에 후원하지 않았지만, 미국 성서공회에는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1달러를 후원했다.

1912년에도 제7회 하와이 연회에서 제임스 W. 배쉬포드 감독이 김윤정을



올리브 연한감리교회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됐다. 그해 하와이 연회록에는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 목사로 박종수 지방전도사를 파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유문찬 지방전도사가 본 교회 목사로 사역하였다. 지난 해와는 달리 그해에는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가 순회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단독 교회로 지정되었다. 그해 김해석이 회계로 일했고, 주일 학교 교사는 김홍순이었다.

지난 여러 해와는 달리 그해 하와이 연회록에서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 교세를 읽을 수 있다. 학습 교인이 14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18명이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한 명도 유아세례나 세례를 받은 자는 없었다. 주일학교 직원과 교사가 2명이었고, 유아까지 합쳐서 29명이었다. 엠워스 청년회 고등부가 조직되었고, 15명이 등록하였다. 1,000달러에 해당하는 예배당이 있었고, 300달러 시세의 사택도 있었다. 지난 한 해 지출 결산이 4달러였고, 이중 선교 항목에서 해외 선교 하에서 회회를 위하여 지출하지 않았고, 내지 선교/교회 확장 하의 회회를 위하여 1달러를 지출하였고, 선교부 항목 아래 교회 일반 교육에 1달러를 지출하였고, 주일 학교에 지출하지 않았고, 흑인 보조회와 부인 내지선교회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에도 후원하지 않았다.

1913년 연회록에 따르면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로 김이제 목사와 김윤정 권사가 파송되었다. 그런데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 역사에는 김이제 목사 대신에 유문찬 지방전도사가 본 교회를 섬겼고, 김윤정의 이름은 찾을 수 없고, 기타 사역자를 소개하지 않았다.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는 오늘날 올리브 연한감리교회로 변신했다.

1913년 하와이 연회록에 김윤정의 이름이 나온 후 하와이 연회록에서는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김윤정의 딸 김노디를 통해 알게 된다. 김노디는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김노라 또는 손노디로 잘 알려졌다. 김노디는 우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22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오벌린 대학을 졸업했다. 오벌린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에 하와이 한인기독교학원 교장이 되었고, 세계 제2차 대전 후 이승만 박사는 김노디를 한국 조달청장에 임명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안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교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6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월-금)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4) 45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6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 (714) 461-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영어권 (중·고·대): 오후 7:30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714) 719-2244, www.dkc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da.org 170 Blin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어회중: 오전 9:00, 11:00 일일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213) 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 (213) 388-1927, www.wmccda.org / worldmissionchurch2@gmail.com 927 Menlo Ave., San Gabriel,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45 수요참배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6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오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오 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8,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회동목사) 주일예배: (월-금) 오전 10:00 오후 4:30 사목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역자 3. 목회자 4. 사역자 5. 목회자 6. 가정사역자 7. 말씀사역자 8. 네트워킹 사역 Tel: (213) 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오전 5:30 24시간 온오프 Tel: (714) 446-6202,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송고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송고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 M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오 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 Tel: 310-310-5500, www.torancecg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전 11:00 TEE-성경공부(주일): 오전 9:30 화요일 3:30(토) - 평강동맹주: 오전 10:30 목요 기도회: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9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II. 칼빈의 영적인 순례

8. 다시 제네바에 돌아온 칼빈

그 이후로 주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킨 많은 투쟁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았다고 말한다. 다윗의 생애 전체를 깊이 생각해보면, 그의 걸음걸이가 마다 칼빈 자신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이 시편의 말씀들은 칼빈 자신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위로가 되었다. 이 성스러운 다윗왕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른 외국의 국가들, 그의 대적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크게 괴롭힌 것은 그의 동족들 가운데 악의를 지닌 암살품과 아하도벨과 같은 자들이었다. 칼빈 자신은 사방으로부터 습격을 당한 나머지 한 순간도 편히 쉴 수가 없었다. 언제나 안팎으로 공격의 예봉이 꺾이지 않았다. 사탄은 종종 교묘한 술책을 써서 이 교회를 아예 송두리째 뒤엎으려고 획책했다고 말한다. 1540년 경 제네바에서 칼빈의 활동을 공공연히 반대하고 대적한 사람들과 파당들이 있었고, 칼빈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1) 3년에 걸친 시련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칼빈은 염려하며 두려움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을 깨뜨리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 생명을 위험 속에 빠트리면서까지 사탄의 공격에 정면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몇의 사악한 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큰 권력을 획득하고 특정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평민들이 이 자들의 유흥과 사악한 계략에 휘말려 무절제한 방종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치리권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했다. 천국의 가르침을 조롱하는 이 세속적인 민중들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권력을 일단 얻기만 하면 교회가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완전히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 칼빈은 이 투쟁에 대하여 “나의 영향력은 사라

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른 손을 펴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다”라고 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험뎀과 굶주리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야망 또는 부당이익에 대한 탐욕과 욕구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성품이 광장히 격해져서 평화롭고 정직한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제어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칼빈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까지도 파멸로 몰아넣고 싶어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어 헛되게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저주받은 책략의 궁극적 결과는 자신들의 머리 위에 치욕적인 파멸을 뒤집어쓰는 것 뿐이었다. 칼빈이 보기에 이것은 고통스럽고 불쌍한 장면이었다. 그들이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언제나 그들이 잘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다. 그들이 모든 선의의 경고에 항상 완고하고 반역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않았어도 칼빈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2) 신학적인 논쟁

칼빈에게 5년이나 계속된 이 같은 시련은 매우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는 칼빈이 아마 세르베투스(Servetus)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1549-1550년이 비교적 조용했던 기간이라면, 5년간의 시간은 1543-1548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는 칼빈이 두 번째로 제네바에 체류하기 시작한 그 이듬해부터 시작된다. 1549-50년의 비교적 조용했던 기간이 지난 후 칼빈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칼빈은 독기서런 중상모략으로 그와 그의 사역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자들의 악한 의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상모략하려는 열정에 눈이 멀어 아주 부끄럽게도 자신들의 치부를 일거에 드러내었다.

또 어떤 이들은 대단히 교활하였으며, 그들에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시에 수백차례나 중상모략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 칼빈은 세상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섭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당시에 칼빈의 가르

침에 악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죄의 창시자는 곧 하나님이라고 떠들어 대었다. 칼빈은 1545년 [자유주의 파들에 대하여]를 써서 이들을 비판했다.

1555년 제롬 볼섹(Jerome Bolsec)이 선한 지역교회 도당들은 오히려 칼빈이 “하나님의 외적 섭리와 다스림 안에 모든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아무리 조롱 섞인 험담이라도 그런 말에 경솔히 귀를 곤두세우고 듣는 것을 즐겨워하는 대중들이 없다면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명은 시기와 심술, 불만, 악의로 인해 기고하리만큼 뒤뜰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 같은 사실을 지적해주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갈멜과 수도승 Terome Bolsec)은 택자와 유기자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뒤엎으려고 애를 썼다.

또 다른 이들은 자유의지를 옹호했다. 칼빈은 자유의지를 옹호하던 알베르투스 피기우스(Albertus Pighius)에 반대하여 1543년 [의지의 속박에 관한 교리의 변호(Defense of the Doctrine of the Bondage of the Will)]를 썼다. 칼빈은 많은 무리들이 그 자유의지를 옹호함에 동조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왜곡된 열정 때문임을 알았다. 이런 난관들을 그에게 가져다 준 장본인이 오직 눈에 보이는 적들 뿐이라면 그다지 참아내기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형제라고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까지 하는 사람들, 곧 자신들이 복음전도자라는 자부심으로 가득차 있는 자들이 칼빈을 대항하여 이 불행한 전투를 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고 탄식한다. 다윗이 불평했던 내용들이 칼빈 자신에게도 딱 들어맞는다고 한다. 칼빈은 “나와 함께 빵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뒷발로 걷어차도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가곤하였던 나의 친한 친구, 나의 동역자가 적과도 같이 나를 모욕했다”고 표현한다.

younsuklee@hotmail.com

이영숙 박사의 성품치유 여행



이영숙 박사

Good Tree Mission, California Grace University
총장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성품치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길

몇 해 전,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된 중국 코스타(KOSTA) 강연에서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강연이 끝난 후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학생의 이름만 듣고 남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얼굴을 보고 나니 여학생이었지요.

“어? 여학생이었네요. 반가워요.”

“네, 저는 여자입니다.”

평범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 많은 사연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많이 고생했겠다.”면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학생은 눈물을 쏟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저는 아버지가 죽을 만큼 싫어요.”

격양된 목소리로 묻는 그녀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아버지와 전혀 다른 분이야. 네 아버지가 너에게 무엇이든 했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네 아버지와 너무나 다르단다.”

그 말을 듣자 학생은 속 깊이 숨겨둔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 놓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셨는데도 할머니와 아버지의 압박 때문에 목숨 걸고 저를 낳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분은 저를 너무 싫어하셨죠. 한 번도 사랑한다며 저를 안아주시 적이 없었어요.”

이 학생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감 없이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창피했어? 아버지 딸이 그렇게 싫었어?”

그랬더니 아버지는 “내가 너를 낳고 죽지 못해 살았지”라고 대답했고, 어머니는 “너 때문에 저 인간이랑 헤어지지도 못하고 살았지”라고 팔 땀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스스로를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저를 만나기 전까지 ‘언제 죽을까’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온 코스타에서 저를 만난 것이지요. 저는 그 학생에게 이사가 43장 4절 말씀을 열 번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이사야 43:4)

그녀는 몇 번 읽다 말고 “안 믿어여요!” 하면서 성경책을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던져진 성경책을 다시 집어 그 학생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이야기야. 지금까지 네가 들었던 네 부모님의 말은 진짜가 아니야. 이 말씀이 진짜 네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국 여학생은 성경 말씀을 열 번 읽으며 영영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 학생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상담이 모두 끝난 후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자살을 결심한 이후로 항상 머리가 아팠는데, 오늘 교수님과 상담하고 나니 머리가 안 아파요! 정말 기뻐워졌어요!”

그 환한 웃음이 지금도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의 깊은 상처와 뒤뜰린 기억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얽히고설킨 거짓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진리의 따뜻한 빛으로 어둠을 밀어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사야 43:4)

이 한마디가 깊은 웅덩이 같은 아픔 속에서도, 잔잔히 퍼져가는 물결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치유란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바로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처를 지녔든, 어떤 연약함 속에 있든, 우리를 창조하셨던 처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성품 안에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고, 진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이자 존귀하며, 결코 잊히지 않을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4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 오후 4:00-7:00 Tel: (773) 821-1112, ebsccross@yahoo.com 603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	말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다윗 The w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2 N 1st street, Pacific Beach WA 98571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360) 907-7271, blescolite@yahoo.com 3806 Country Club NW, Olympia, WA 98502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891, 267-471-7777, Fax: (610) 222-0892 3280 Wilmer Rd, Lansdale, PA 19446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성종 주일 1부예배: (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한) 오후 1:45 금요찬양: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6,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 오후 8:00 유지, 워렌,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6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n, MA 01748
센터빌인간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Tel: (703) 581-9235, www.jorencpc.org 25454 Gum Spring Road, Little Rock,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6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337 706 Wilmer Rd, Hosiarn,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오광균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213-1200, (254) 658-3176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kp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예수가 필요한 사람

크리스마스 하면 새벽송의 추억이 있다. 어릴적 다니던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교인들이 다 모여서 떡국을 먹고

함께 찬양하고 발표회를 했다. 발표회가 끝나면 어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교

회에서 게임을 하고 놀다가두 세시 쯤 되면 전도사님과 함께 새벽송을 다녔다. 승합차를 타고 교인들 가정을 돌면서 집 앞에서 캐롤을 부르면 어떤 집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고 나와서 함께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찬송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나와서 인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이 열리면 큰 상을 차려놓고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 그 때는 과일이며 과자를 싣고 먹어서 좋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분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맞이할 준비를 하셨겠구나 하는 사랑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송을 다 돌고 교회로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예배시간에 꾸벅꾸벅 졸던 기억이 난다. 이 새벽송은 캐롤링(caroling)이라고 하여 영

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찬양했던 것을 본따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 밤 중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했듯이, 새벽송으로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어릴 때 성탄절에 성극을 하면 이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참대부러웠다. 긴 옷을 입고, 멋진 긴 지팡이를 들고, 멋진 수염도 붙여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목자들은 그렇게 폼나는 사람들이 아니다. 당시 기준으로 하면 천하고 신분도 낮은 사람이었다. 한 밤 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밤에 집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고생스럽고 힘든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뿐이라, 제대로 씻지도 못하니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다.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먼저 찾아왔다. 예수님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고,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황제의 한달 식비가 1천만불 가량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런 이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었다. 예수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대왕이었다. 열등감이 가득했던 그에게 예수는 경쟁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헤롯에게도 예수는 필요 없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지도자는 대제사장 안나스 였다. 그는 헤롯대왕의 허락 하에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헤롯

대왕의 온갖 추악한 문제들을 다 가려주고 있었다. 그런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는 자신의 위치와 지위가 중요했지,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날 예수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도, 헤롯 대왕에게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도 예수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목자와 같이 밤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말똥냄새 뒤집어 쓰고, 사람취급도 못받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런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이다.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없어도 충분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wmclakim@gmail.com

인/터/뷰

새생명교회와 그루터기교회 통합 첫 예배

밸리 토핑가에 있던 새생명교회(지성은 목사)와 밸리 라센 길에 있는 그루터기교회(임시목사 정용치 UMC 은퇴목사)가 15일(주일) 오전 11시 샌퍼난도 밸리 아카데미 채플(Sanfernando

Valley Academy Chapel)에서 통합 후 첫 예배를 드렸다. 첫 예배에 참석한 기자는 두 교회의 아름다운 통합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두 교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들과 새생명교인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싶은 좋은 학교에 진학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새생명교회와 그루터기교회 통합 첫 예배에서 정용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아래 원 안은 이날 사회를 본 지성은 담임목사

△ 정 목사님과 지성은 목사님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셨는지요?

그루터기 교회는 10여 개월 동안 정용치 목사님이 임시 담임으로 예배를 인도했지요. 그런데 정 목사님의 요청으로 새

겔 37:17)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심을 믿고 든든한 한 가지가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 정용치 목사님은 ‘둘이 하나로(전 4: 9-12)’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지요. 정 목사님은 그루터기교회의 탄생과 10여 개월 동안의

교회를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님의 은혜로 두 교회가 통합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기쁘기 한량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이 함께 하는 사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서로 돕고 세우는 행복한 신앙공동체가 되길”

생명교회의 지성은 목사님이 그루터기교회 소그룹을 위해서 약 6개월 동안 성경공부를 지도한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후 새생명교회와 그루터기교회는 병합 이야기가 나왔고, 교단 가입 문제로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마침내 그루터기 교회가 기갑인 새생명교회와 하나가 되기로 결정이 되었고, 교회 이름은 새생명교회로, 담임은 지성은 목사님, 그리고 교회 건물은 그루터기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샌퍼난도 아카데미를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첫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요?

12월 15일 첫 주일예배를 맞아 뉴욕사랑의교회(현 로즐린한인교회) 민병렬 은퇴 목사님이 축사를 해 주셨고, 정용치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민 목사님께서 ‘두 교회가 하나가 됨’을 먼저 축하하고, 자신의 사역 경험을 통해 둘이 하나 됨의 어려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루터기에서 새생명이 나오는 기적이 일 듯, 그루터기교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루터기교회는 은퇴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많고 신앙 연조가 높은 분들이 많지만, 한편 역동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목사님은 그동안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겨왔는데, 사역에 한계를 느끼고 기도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지성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두 교회가 함께 한다면 교회의 역동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정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지 목사님에 대한 소견과 교우들에 대해 하고픈 말씀은?

지성은 목사님과는 감신대 학교 선후배 사이였지만 교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루터기교회 소그룹을 위해서 지 목사님이 저희교회에 오셔서 성경공부를 인도하셨거든요. 그때 지 목사님과 몇 번 만나면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성품도 좋고 잘생기셨고, 자녀를 역시 누구나 가고

람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교회가 하지 못한 것을 두 교회가 연합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매주 듣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경청하라고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만나 구하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며,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서로 도우며 행복한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자는 두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이 주위에 아름다운 영향력과 본이 되기를 바라며 발걸음을 돌렸다. 새생명교회 새주소는 176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이며 자세한 것은 (818)489-7651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샌퍼난도밸리 교역자협의회 성탄축하 연합예배에서 이경호 목사가 지휘하는 합창단이 특별찬양을 드리고 있다

샌퍼난도밸리 교역자협의회 성탄축하 연합예배 열려

11명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식도 겸해

샌퍼난도밸리 한인교회 교역자 협의회(회장 전지승 목사) 성탄축하 연합 찬양예배가

8일(주일) 오후 5시 만남의 교회(이정현 목사)에서 열렸다. 최주철 목사(은혜가 샘솟는교



OC전도연합회 12월 송년조찬기도회가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열렸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12월 송년 조찬기도회 가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연합회 되길”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지난 7일(토) 갈보리선교교회에서 2024년 12월 송년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OC목사회 이원석 목사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한성준 부회장의 대표기도 후 조현영 목사가 ‘세월을 아끼라’(엡 5:15-21)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현영 목사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시간을 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

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전도회연합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송년기도회로 연합회와 각자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과 남은 연합회 사역 위해 기도한 뒤, 연합회 이사 임재선 장로의 마무리기도로 마쳤다. 2부 연합회 및 교계소식 시간에는 2024년 1년을 되돌아보는 사진을 순서지에 넣고 함께 회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합회는 12월

21일(토) 오전 10시에 제45차 정기총회를 조찬기도회 장소인 갈보리선교교회에서 갖고 내년도 회장단을 선출하게 된다. 한편 이사회 정기총회는 그보다 앞선 16일(월) 오전 10:30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장모설령탕집’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제5차 선교사자녀 장학금전달식은 29일(주일) 오후 5시에 은혜한인교회 친교실에서 갖는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OC교협 회장 이취임식과 OC교계 연합송년회를 겸해 진행된다. 이에 대해 신용 회장은 “선교사 자녀 장학금 모금은 연합회뿐만 아니라 OC교계와 커뮤니티가 협력해 만들어낸 일이지에 많은 기관장, 단체장, 교계 인사들을 모신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회는 매월 첫 토요일에 조찬기도회를 갖고, 상반기에 교회 연합심가합창제를, 하반기에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를 연다. OC인근지역 기독교 평신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합회 홈페이지:www.ockca.org, 이메일: ockca1@gmail.com, 유튜브 채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정리: 박준호 기자〉

심박수와 평강

〈2면에서 계속〉

폭풍이 지난 후 웨슬리는 한 모라비아교인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폭풍이 두렵지 않습니다 까?” 모라비아 신도들이 대답한다.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웨슬리는 모라비아 평신도들의 그 의연함과 믿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풍랑을 두려워하며 허둥대는 자신이 목회자임이 한없이 부끄

러웠다. 이 체험은 웨슬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 평안해”를 부를 수 있는 지극한 평온함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절대 신뢰요,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신앙은 심장으로 표현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오늘날도 어김없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지만(하나님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 머리 숫자를 세지 않으시고 성도의 심장 박동수를 세신다고 한다), 펄쩍 뛰어야 할 다급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온함이 있기를 바란다. 그 반대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젖 뎠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고요하고 평온함(시 131:2)이 있기를 기도한다.

by 최원준, TGC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장로교회, VIP 초청을 위한 성탄 특별 칸타타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12월 25일(수) 오전 10시 본당에서 '119/911 기도 운동의 열매를 위한 성탄 특별 칸타타'를 개최한다.
▲ 문의: 718-706-0100

2024 PG KIDS 성탄 뮤지컬 "The Messiah Comes to Me"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춘길 목사)는 성탄을 맞아 이웃과의 하루 문화행사로 PG KIDS 성탄 뮤지컬 "The Messiah Comes to Me"를 12월 26일(목) 오후 3시, 7시(2회 공연) Hackensack Performing Art Center(102 Sate St., Hackensack)에서 개최한다. 공연수익은 난민선교를 위해 쓰여진다.
▲ 문의: 201-461-1225

벤엘교회, 크리스마스 칸타타 '캐롤의 축제'
벤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12월 25일(수) 오전 10시30분 본당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캐롤의 축제'를 연다.
▲ 문의: 410-461-1235

퀸즈장로교회, 2024 성탄 축하 찬양제

“Love is Born” 주 사랑으로 오셨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12월 15일(주일) 오후 4시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2024 성탄 축하 찬양제를 "Love is Born", '주 사랑으로 오셨네' (지휘 강혜영 권사, 오르간 송소영 권사, 피아노 최미희 권사)를 주제로 열렸다.

"Love is Born"은 작곡가 Lloyd Larson의 신작으로 한국 교회로서는 최초로 연주되는 작품이며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심을 놀라움으로 감탄하며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라는 네가지 주제로 크리스마스를 노래한 곡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와 성탄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활기찬 기악 연주와 웅장하고, 강력한 결말로 그려낸 곡이다.

1부 예배는 찬양위원회 담당 최원일 장로의 사회로, 최미희 권사의 기도, 김성국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

한 아기가 우리에게(이사야 9:6)"를 주제로 전한 설교에서 "자그마한 씨가 심어지면 피약별과 비바람을 맞으며 그 씨앗 하나가 희생하고, 자라서 큰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씨앗과 같이 작은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큰 열매를 맺으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에 반드시 예수님이 심겨져야 한다. 작은 예수가 내 안에 심겨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제를 통해 우리 모두와 다음세대가 다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는 아기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2부 찬양제는 관현악대의 "소망의 종소리"로 시작되어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이어졌다. 성탄의 메시지를 전한 영상과 함께 이어서 연합찬양대, 청년들로 구성된 헤리티지콰이어, 유초등부 찬양대가 순서대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다함께 찬양했다. "오소서, 오

래 기다리던 백성의 소망이시여",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라", "평화가 오리라", "천사들 노래 울려 퍼지네", "놀라운 우

리 기쁨!", "주 사랑으로 오셨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마지막 찬양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모든 찬양대가 다함께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 드린 후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성탄예배 및 제53회기 이·취임식

“하나 되게 하소서 (엡 4:3)”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한준희 목사)는 지난 15일(주일) 오후 5시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목사 시무)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엡 4:3)"의 표어로 성탄예배 및 제53회기 이·취임식을 가졌다.

제53회기 회장 한준희 목사는 "목사회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 모든 사역과 사업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53회기 목사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역이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도 부탁했다.

이승중 목사(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의장)는 설교에서 '처음 사랑의 회복 (계 2:4-5)'이라는 주제로 "에베소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이민 교회의 영적인 처방은 예수 안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 심장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며,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첫사랑을 찾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 이·취임식에서는 직전회장 정관호 목사는 '양무

리의 본이 되라 (벧전 5:3)' 표어로 1년 동안 사역을 돌아보며 느낀 바를 전하고 "목사회가 더욱 존경과 사랑받는 목사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53회기에는 복음전도와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이어 주효식 목사(뉴욕교협 부회장)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탁월한 지도자로 회복의 돌파구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며 축사를 전했다.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는 "순수하고 진솔한 목사님이 주님이 기뻐하는 목사회를 이끌어갈 적격자이며 회장과 부회장(박희근 목사)이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안창의 목사(증경회장)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역하며, 신뢰받는 사역을 이끌어갈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후 한준희 목사는 임원을 소개하고 직전 회장 정관호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이창남 목사(체육분과)에게 임명장을 대표로 수여하고 의료자문 정인국 장로, 법률자문 천일웅 변호사, 회계자문 신석호 회계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모든 순서는 정숙자 목사(회계)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뉴욕교협, 미드나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 마지막 연합 찬양을 하고 있다

뉴욕교협, 미드나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콘서트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지난 13일(금) 오후 7시 30분 프라미스교회(시무 허연행 목사)에서 미드나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했다.

회장 허연행 목사는 행사 개최에 대해 "뉴욕교회협의회가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모여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으로 모였다. 낮의 예배도 좋지만, 힘든 시기에 한 밤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시간을 나누자는 뜻으로 행사의 이름을 '미드나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 건강을 유지하려면 세 가지 요소, 에베셀, 임마누엘, 마라나타가 필요하다"며 "에베셀의 신앙, 임마누엘의 믿음, 마라나타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밤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경연 집사의 사회로 시작된 미드나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허연행 목사 피아노와 프라미스교회 부목사 섹스폰 연주로 문을 열었다. 이후 뉴욕장로성가단(지휘 한문섭 장로, 단장 송윤섭 장로), 리조이스 여성 콰이어(지휘 엄숙인 집사), Christian Choral 합창단(지휘 장효종 집사)의 합창은 성

탄의 기쁨을 가득 담은 합창을 펼쳤다. 이정석 집사의 오버에, 뉴욕크로마하프 연주단(지휘 이진아 목사, 단장 박영희 권사), 이교혁의 기타, 실내악 앙상블, 예셀 유스오케스트라(지휘 석한솔 집사)의 연주는 성탄의 기쁨을 한층 더 풍성하게 전달했다. 또한, 중국 New Day Church의 Catia Shi의 독창, 소프라노 이예진과 테너 한문섭 장로의 듀엣 찬양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날 콘서트는 서수남 장로의 특별 출연으로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다.

뉴욕목사회 회장 한준희 목사는 "오늘 콘서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빛났다.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축사한 후 축도했다.

마지막 순서로 출연진들이 모두 나와 '참 반가운 성도여'를 다함께 연합으로 찬양하며 성탄의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선사했다.

〈홍현숙 기자〉



성탄축하찬양제 후 찬양대와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지역교회부흥선교회,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 감사 찬양예배 후 사진 촬영했다

지역교회부흥선교회,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 감사 찬양예배

“하나님 앞에 섬기다 간 삶, 해같이 빛나길”

지역교회부흥선교회(대표 허윤준 목사)는 사모 위로의 시간 및 성탄 감사예배를 12월 12일(목)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정상철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허윤준 목사는 "19년 전,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교회임을 믿으며 지역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소망하며 목회를 시작했다. 평생 교회를 섬기신 사모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진정한 교회임을 깨닫고, 일 년에 한 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많은 도움과 협력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김재열 목사는 설교에서 '아침 해 보다 선셋이 더 황홀하다(시편 71:18)'는 주제로 "성경 속 선배들은 평균 150세를 살았다며 나이가 들어도 신앙과 사명이 있으면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선교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세상을 밝히는 선셋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진 삶은 귀하고,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다 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섬기다 간 삶이 해같이

빛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병홍 목사(뉴욕원로목사회 회장)는 "원로목사회는 매년 이 시간을 기다리며 은혜와 힘을 받는 보람된 시간이다"며 하나님과 지역교회부흥선교회와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2부 성탄축하찬양은 G to G(박승호 집사와 이성기 집사)가 준비한 찬양 '나의 소망'을 통해 목회에 헌신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은중, 눈, 탄일중, 징글벨'을 박수와 함께 신나게 불렀으며 뉴욕장로성가단 찬양과 전은애 사모와 전애실 사모 자매의 피아노 연주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성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보다 더 성숙된 목회자 섹스폰 동우회가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했다.

이어진 3부에서는 디모데목회자훈련원(원장 이용걸 목사)에서 목회자 자녀 이기쁨 군(고든윌슨신학교)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이어 이만호 목사(교협증경회장)의 합심기도 후 안창의 목사(교협증경회장)의 축복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성탄예배 및 제53회기 이·취임식 후 사진 촬영했다



선교를 위한 2024년 성탄절 콘서트와 예배 후 사진 촬영했다

센터빌한인장로교회, 선교를 위한 성탄절 콘서트와 예배

'하느 보좌를 버리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

센터빌한인장로교회(차용호 목사)는 아기 예수 성탄의 절기(눅 2:14)를 맞이하여 지난 15일(일) 오후 6시에 선교를 위한 2024 성탄절 콘서트와 예배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 헌금 전액과 지이몽 선생의 붓으로 성경 구절을 써서 종이 액자로 만든 헌물의 판매 수익은 태국선교회(신홍식, 이순영, 신영선, 김봉순 선교사), 모퉁이돌선교회(이삭 선교사), 밀알선교회(단장 정진정 목사), 광야교회(나운주 목사), 굿스푼선교회(김재역 목사), 워싱턴북한선교회(노규호 통일선교사)를 후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성인합창단(LISC-Loving

Inspiring-Sharing Music Society)(지휘:유일 전도사, 총무:위명희 집사)이 캐럴과 찬양 20여 곡을 선보이며 은혜로운 시간을 나눴고, 전찬선 목사(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의 기도와 감사목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센터빌한인장로교회는 25일(수) 오전 11시에 나운주 목사(광야교회)를 감사로 초청해 성탄절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본교회는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모든 분을 정중히 초대하며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문의: 703-581-9235.

(기사제공: 센터빌한인장로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러빙워십 Beloved Concert가 성황리에 열렸다

러빙워십 Beloved Concert 성황리에 열려

“3대가 함께 모여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돼”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이 주최하는 Beloved Concert가 13일(금) 오후 8시, 14일(토) 오후 7시 라미라다 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조셉 리 목사는 “지난 8월17일에 LA 노보극장에서 열린 비와이 콘서트에 많은 청년들이 왔으며 80명이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며 “비와이 콘서트가 마친 뒤 올해가 가기 전 3대가 함께 모여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했다. 조셉 목사는 “기도하며 콘서트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의 새롭게 하소서 MC, 헐리웃의 최고의 뮤지션이 함께하게 되었다. 이 공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격려,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 바라며 모든 순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작곡가 주영훈 씨(새롭게 하소서 진행자)가 메인 MC로 나선 가운데 13일(금)에 열린 첫날 콘서트는 박요한 목사, 전 시크릿 멤버인 송지은이 보조 진행자로 함께했으며, 마이클 잭슨, 브리트니 스피어스, 스티비 원더, 휘트니 휴스턴 등과 함께 음악 작업을 했던 세계최고의 밴드 멤버들과 가스펠 싱어들, 가수 조병진, 다비, 티아가 출연하여 흥겹고 은혜로운 시간을 선사했다. 또한 주영훈 씨, 송지은 씨, 박요한 목사와 이번 콘서트를 진두지휘한 조셉 리 목사가 함께 ‘중독’이라는 주제로 새롭게하소서 포맷으로 토크쇼를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러빙워십 스태프들과 전출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관중들과 함께 부른 뒤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위스트민스터 경찰국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식사대접을 했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위스트민스터 경찰국 방문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는 지난 6일(금)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에 방문해 경찰관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교회 측은 “연말을 맞이하여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통해 지역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다양한 한식과 BBQ가 차려진 테이블 앞에 남성수 담임목사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교인 봉사자들과 경찰국 관계자가 함께 자리했다.

(기사제공: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한인가정상담소 연말 홀리데이 이벤트

“입양·위탁가정 아동과 함께한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축제”

KFAM(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은 입양 및 위탁가정 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홀리데이 행사를 지난 7일에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AFFI 프로그램에 속한 모든 가족을 위한 자리로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행사로 약 100여 명의 아동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나눔과 사랑이 가득한 연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행사에서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맛있는 식사와 더불어 선물 증정, 스крап 만들기 같은 체험 부스를 통해 아동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모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아동들에게 특별한 연말 선물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중요 후원자로는 알버트 김, Los Angeles County DCFS Prevention & After Care, 재외동포협력센터, 디즈니, 베다니 교회, 그리고 그 외 많은 개인 후원자들의 정성 어린 기부금이 있었다. 또한, KFAM 보드 멤버인 제니퍼 서는 아이들을 위해 60개의 구디백을 준비해 선물했다. 캐서린 염 소장은 “입양 및 위탁가정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 행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해 주신 지역사회의 사랑과 관심덕분에 가능했다. 모든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KFAM은 앞으로도 입양 및 위탁가정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송년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2024 송년회 열려

“성시화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것”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송년회가 16일(월) 오후 5시 아로마센터 내 뱅킷룸에서 열렸다. 이철주 사무국장 인도로 열린 1부예배는 진유철 목사가 기도, 그레이스 장 권사(운영위원)이 성경봉독, 황규동 목사(성문교회 담임) 색소폰 특주가 있었다. 이어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마 5: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성시화운동의 중요성과 미국 및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성시화운동이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특히 한국과 미국의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교도 신앙의 사회적 참여와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을 예로 들며, 미국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청교도 신앙이었다”며 미국이 세계대전과 공산주의로부터 세계를 구원한 역할을 강조하며, 청교도 신앙이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와 LA의 타락을 언급하며,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가 제2의 청교도 운동을 통해 이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성시화운동이 모든 교회가 연합하는 중요한 운동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운영위원) 축도와 2부 만찬에 이어 곽운영 집사(운영위원) 진행으로 열린 3부 교제의 시간은 김재권 장로(이사장) 환영인사, 송정명 목사 내빈소개, 강태광 목사(운영위원) 레크레이션, 황선철 장로(CBMC 중경회장)의 성시화에 바라는 일들, 유분자 이사장(소망소사이어티) 감사인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테너 오위영, 양두석, 오정목의 특별선서가 있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공동회장)이 합심기도 인도와 마침 기도으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밸리우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 32회 연주회를 마치고 자원봉사상 시상식을 갖고있다

밸리우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 32회 연주회 성황

밸리우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구자형, 뮤직디렉터 헨리 신)가 주최한 윈터콘서트가 15일(주일) 오후 7시 주안예교회(담임 이종환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구자형 단장은 “오케스트라가 생긴지 16년이 되었고 32번째 연주회를 하게 되었다.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음악회를 했었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하게 되어서 더 기쁘다. 오늘 연주회를 통해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주회는 뮤직디렉터 헨리 신이 지휘로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8번 B단조와 헨리 멘시니의 ‘A Tribute to Henry

Manchini’,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연주했으며 앤드류 러브랜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과 빈스 과랄디와 리멘델슨의 ‘찰리브라운 크리스마스’를 연주했다. 또한 콘서트 연주가 마친 뒤 자원봉사상 시상식을 가져 이창선, 아브라함 김, 갈렙 김, 조수아 김, 조주은, 올리비아 신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밸리우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단원모집을 하고있다. 오디션은 내년 2월 15일이다. 자세한 것은 (818)363-5887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홀리데이 행사 진행 스태프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있다

서부교계

베델교회 2025년 신임임직자 임직예배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2025년 신임임직자들의 임직예배를 22일(주일) 오후 4시 30분에 갖는다. 임직예배 강사는 김우준 목사(토렌스 조은교회 담임)이다.
▲ 문의: (213)200-9544

교계연합 신년축복 부흥성회

교계연합 신년축복 부흥성회가 1월1일(수)부터 4일(토)까지 오후 7시30분 미주양곡교회(담임 지용덕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성회의 강사는 지용수 목사(한국양곡교회, 예장통합 중경총회장)
▲ 문의: (213)500-8583, 380-9377

글로벌비전교회 주일저녁 예배

글로벌비전교회(담임 제임스 구 목사)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 오전 정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저녁 7시에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장소는 7342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lifornia 90621이다.
▲ 문의: (949)667-0264(J. Lee, JDSN), (714)393-4595 (문자가능)

GP선교회 대표 이취임 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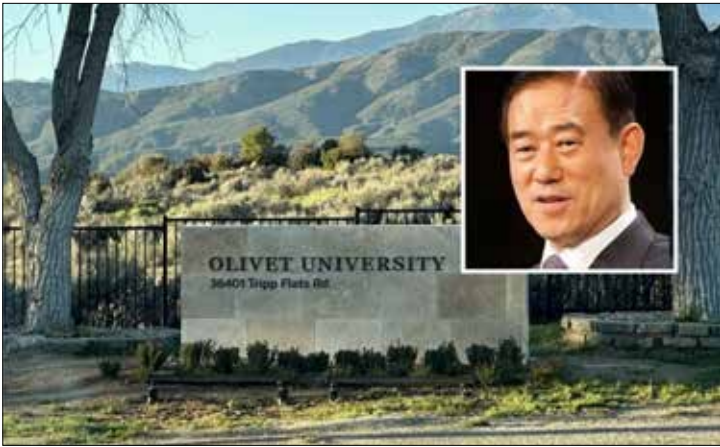
GP선교회 대표 이취임 감사예배가 오는 1월2일(목) 오후 7시 디사이플교회(담임 고현종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이취임예배는 백운영 선교사가 신임대표로 취임하게 된다.
▲ 문의: (714)774-9191

고 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

LA동부장로교회를 개척하고 43년간 시무했던 고 이용규 목사의 성경강해 설교집을 희망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설교집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아래 문의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덴버 제자교회 2대 담임목사 청빙

덴버 제자교회는 2대 담임목사를 다음과 같이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미국장로교(PCA) 교단 소속이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중언어(한어/영어) 소통과 미국체류 및 목회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목사 안수 후 북미지역에서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 목회경험이 있는 자다. 제출서류는 덴버제자교회 홈페이지(denverjeja.org)에서 지원서 양식지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자기소개서 1통, 목회계획서 1통, 추천서 1통과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영상 1편을 2025년 2월28일(금)까지 보내면 된다. 보낼 곳은 이메일(denverjeja8390@gmail.com)과 우편(Choong Joh, 9249 S. Broadway Suite 200, Room 379., Highlands Ranch, CO 80129)으로 보내면 된다.
▲ 문의: denverjeja8390@gmail.com



올리벳대학교 자주 행정법원 폐쇄명령 받았다. 사진은 뉴스위크에 실린 장재형 목사와 올리벳대학교

올리벳대학교 자주 행정법원 폐쇄명령 받아

장재형(영어명 데이빗 장)목사가 운영하는 기독교계 사립대학인 올리벳대학교(Olivet University)가 캘리포니아주 교육규정 위반을 이유로 폐교조치가 내려졌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5일(주일) 보도했으며 미주한국일보 역시 16일(월) 뉴스위크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최근 행정법원은 롬 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캘리포니아주 사립고등교육국(BPPE)을 대신해 고발한 14개의 위반사항을 받아들이며 올리벳 대학의 문을 닫도록 명령했다. 행정법원의 데브라 D. 니에-퍼킨슨 판사는 대학측에 내년 1월10일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마칠 수 있는 플랜을 제시하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본타 검찰총장 명의로 제출된 고발장에서 BPPE는 지난 2022년 11월과 2023년 1월 리버사이드카운티 안자에 위치한 올리벳대학교 메인 캠퍼스와 샌프란시스코 인근 밀밸리에 있는 북가주 캠퍼스를 불시 방문해 대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 대학은 수업 커리

클럼이 주정부에 신고된 것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고, 학사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지난해 3월 BPPE는 이러한 위반사항 총 14가지를 담아 올리벳대의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기독교일보(사장 이인규 목사) 설립자로 알려져 있는 장재형 목사가 지난 2020년 설립한 올리벳 대학은 리버사이드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외에도 워싱턴 DC와 미주리주, 플로리다주 등 7개주에 10개 캠퍼스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LA 타임스도 지난 9월 이 대학이 학생들을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로 중국출신 학생들에 의해 피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연방 국토안보부는 올리벳 대학의 안자 캠퍼스를 급습 노동착취와 자금세탁, 비자사기 등의 혐의를 조사했으며, 현재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이 이 케이스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 맘 때면 늘 들리는 Sky Nursery란 곳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곳을 찾은 이유는 성탄장식을 지나치지도,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으면서 아주 조화 있고 예쁘고 아

름답게 해놓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그런 성탄장식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그곳에 도착해서 Nursery 안으로 발걸음을 들여놓는데 어디선가 청아한(?) 노랫소리가 저의 귀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저의 발걸음은 성탄장식이 아닌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그 곳에서는 전혀 통일을 이루지 않은, 그저 각각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탄을 의미하는 각양 문양들로 수놓아진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성탄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허리가 굽은 채로,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

람, 나이가 어려보이는 사람, 몸이 너그러 보이는 사람, 몸이 좀 야위었다고 여겨지는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 좀 없어 보이는 사람, 피부색도 아주 각양각색...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해서 보기에 잘 어울려 즐겁게 성탄캐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에 '믿음은 저렇게 생활이 되어야 한다',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왔던 것이 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르는 성탄송이 저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게 "cage free"라는 달걀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그래 cage

free라는 달걀처럼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닌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생활을 저렇게 표현하고 펼쳐갔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cage free"란 닭장에 갇혀서 주인이 주는 모이만 먹으며 알을 낳는 닭의 알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마음

껏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먹이를 쪼고 먹는 닭이 낳은 알이라 보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값도 비싸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두가 선호합니다. 것처럼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믿음이 아닌 세상 밖 어디에서나 빛과 소금으로 가진 믿음을 표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에 불들려있는 제

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그렇습니다. "땅에서"입니다. "땅"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그저 화려한 데코레이션이 아닌 삶으로 표현하는 성탄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장 멈춘 교회학교, '학교교회'로 회복...

학원복음화로 다음세대 성장 꿈꿔

교회학교가 위기인 상황 속 '학교교회'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청소년 사역단체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대표 최새롬 목사)은 16일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김요나 목사)에서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자 양성과정'을 열고 학교 내 예배와 기독교 활동을 소개했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은 지역 학교에 비신자를 대상으로 예배와 기도모임을 세워 선교적 교회학교를 구축하는 운동이다. 이날 박성광(오류교회) 천다니엘(혜성교회) 최주영(은광교회) 목사가 사례를 발표했다. 최주영(33) 목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시기에 접한 신앙이 삶 전체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학원복음화 학생 선교사

선배'다. 최 목사는 4명의 친구들과 기도모임을 시작해 80명이 참석하는 예배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다. 당시 최 목사를 포함해 기도모임을 세운 학생 5인 중 네 명이 목사가 됐다. 그는 이전은광교회(김상기 목사)에서 4년 간 사역하며 경험과 시행착오로 여섯 개 학교에 예배와 기독교동아리를 세웠다. 최 목사가 학원복음화를 이론과 경험을 통해 알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학원복음화 사역을 시작한 2년 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사역의 활력은 학교에서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한 학생의 부탁으로 시작됐다"며 "그 학생을 중심으로 친구 선생님 학교를 위한 기도모임은 매주 성장해 30명의 아이들이 참석하는 모임

으로 커졌다"고 말했다.

천다니엘(37) 목사는 교내 기도모임 기독교동아리를 세우는 학생 선교사 파송을 강조했다. 서울혜성교회(정명호 목사)에서 3년6개월 간 사역한 그는 종로구와 성북구 소재의 일곱 개 학교에 예배를 세웠다. 천 목사는 "청소년부에게 숫자의 기준보다 우리 모두가 학생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전했다"며 "한 학교에서 복음화가 시작되면 아이들 사이에 '나도 해볼까'라는 용기가 생겨난다. 그때부터는 여러 학교에서 학원복음화가 부흥되기 시작한다"고 했다.

최새롬 목사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아이들은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아이들이다. 여전히 전통교회적 구조와 생리를 따르는 한국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지혜를 발휘해야 할때"라며 "교회는 문턱이 높지만 교회가 지역사회로 직접 들어갔을 때 그 문턱은 낮아진다"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전국 여덟 개의 중고등학교에는 매주 6700여 명의 학생이 점심예배와 기독교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한국교회는 '다음세대가 사라진다'고 걱정하지만 학교는 '이 많은 아이들을 누가 교회로 데려갈까' 고민한다"며 "교회 내 부서 단위를 넘어 교회 전체가 학교 내 작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간식과 섬김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굳어진 교계 '역피라미드', "뚝뚝하고 힙한 교회 있나요"

한국리서치 '2024 종교인식조사'

고질적인 역피라미드 구조가 교계에 굳어지고 있다. 연령별 교인 비율이 가장 낮았던 18~29세에선 탈기독교 현상까지 이어졌다. 다음세대를 일으킬 해법으로 전도학 교수는 교회의 변증 사역과 공동선 기여를, 현장 사역자들은 문화와 사역의 조화를 꼽았다.

16일 한국리서치 '2024 종교인식조사' 발표를 보면 2024년 연령대별 기독교인 비율은 13%(18~29세) 16%(30대) 20%(40대) 20%(50대) 23%(60대) 29%(70세 이상)로 파악됐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교인 인구도 적은 셈이다. 전 국민 중 기독교인 비율은 5명 중 1명(20%)으로, 2018년

(22%)에서 2019년 2%포인트 하락한 뒤 줄곧 20% 선을 유지 중이다. 18~29세 기독교인 비율(13%)은 1년 만에 2%포인트 감소하기도 했다. 18~29세 여성 기독교인(11%) 비율은 모든 성별·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반대로 무종교인 응답자 중에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비율이 늘었는데, 18~29세에서는 10명 중 7명(69%)이 믿는 종교가 없었던 반면 60대에서는 38% 70세 이상에서는 30%만이 종교가 없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기독교인 10명 중 8명(81%)이 "삶에서 종교활동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와 견줘

11%포인트 증가한 결과로, 삶과 신앙이 밀접해진 교인들이 늘어난 셈이다. 가톨릭 신자와 불교 신자는 각각 53%, 33% 비율로 "종교활동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전도학) 교수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 는 주된 이유는 '기독교가 내 인생에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있다"며 "2030세대는 변증적 접근이 필요한 세대"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다음 세대는 진정한 믿음이 신앙생활의 유익을 고민하는 세대"라며 "신앙이 삶에 왜 필요한지 변증하고, 복음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 사역자들은 교회가 다음세대 문화를 포용할 때 복음의 통로도 열릴 거라 기대했다. 남빈 뉴송처치 목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어기시면서 하신 사역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라며 "비본질인 문화까지 문제 삼아 다음세대 전도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생명을 구하는 일엔 문화적 기준을 두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 에겐 신앙의 모범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목사는 홈대 클럽을 예배당으로 바꾼 목회자다. 400여명에 달하는 교인 중 99%는 10~30세대.



'밥퍼', 20년간 복지 사업 수행하고 공익에 이바지했다

"건물 존치될 만한 공익적 요소가 있다" 판결

다일공동체(이사장 최일도 목사)가 행정 소송을 거쳐 동대문구의 철거 시정 명령에 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동대문구는 무상급식 '밥퍼' 사역을 해온 다일공동체가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했다며 2년 전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다일공동체가 증축할 때 동대문구의 잘못된 전체 하의 지도와 안내가 있었다"며 "다일공동체는 존치될 만한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판결했다.

16일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일공동체가 건물을 증축하려고 했을 때 동대문구는 특별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일공동체는 동대문구를 신뢰

해 신고 없이 증축했는데 동대문구가 이에 반하는 (철거) 시정 명령을 함으로써 다일공동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다일공동체 건물도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동대문구 사이에 오고 간 공문에 의하면 서울시는 여러 차례 동대문구와 기존 건물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 동대문구가 10년 이상 아무런 행정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기존 시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동대문구와 밀접하게 관리하지 못한 서울시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봄이 타

당하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해온 밥퍼의 공로도 인정 받았다. 판결문에는 "다일공동체는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해왔고 하루 1000여명 상당이 기존 및 신규 시설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다"면서 "이처럼 다일공동체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신규 시설을 존치시키는 것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요소도 있다"고 명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일공동체가 '가설건축물'이므로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에 해를 끼쳐 철거해야 한다"는 동대문구의 주장도 수긍할만한 부분이 있으나 시설이 사실상 '공용건축물'에 해당함으로 철거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최일도 목사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다일공동체 사역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지난 2년의 세월은 처절한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흘린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셨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일공동체는 오는 25일 성탄절 독거 어르신 1500여명과 함께 거리성탄예배를 연다.



20년간 교회 카페 수익금 국내외 낮은 곳에 흘러보내다

누적 기부액 25억 달성 감사예배

15일 오후 대전 서구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새로남 카페'에는 답소를 나누는 교인들이 가득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는 공간은 시중의 어느 카페와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꾸며져 있었다. 다섯 명의 봉사자들은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교회는 비전센터 10층 489㎡(147평) 넓이의 공간에 170석의 좌석을 마련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 '라바차' 원두를 사용하는 카페는

'전망 맛집'으로 유명하다. 카페의 진가는 수익 전액을 기부하는 데서 빛을 발한다. '커피 한잔'이 빛을 기적은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됐다.

2004년 문을 연 '새로남 카페'는 이날 '누적 기부액 25억원' 달성 감사 예배를 드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온 그간의 역사를 되짚고 사명을 재확인했다. 새로남 카페는 이날 그동안의 공을 인정받아 '나눔국민대상'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도 받았다.

오정호 목사는 "커피를 통해 얻는 수익 전액을 이웃과 사회 곳곳으로 흘러보내 왔다"면서 "새로남 공동체는 다섯 달란트 받은 교회로 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걸 실천하기 위해 그동안 쉬지 않고 기부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단절됐던 코로나19 때도 이웃과 이웃을 있는 사고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68)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급변하는 시대의 선교사 상의 변화 (2)

영국 출신의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나 미국의 첫 번째 해외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과 같은 선교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며 초기 선교사의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진 캐리선교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환경과 필요한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준비가 이루어진 때에 마틴 루터가 등장한 것을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윌리엄 캐리의 등장으로 세계선교의 큰 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세계선교운동의 개진을 위한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기 기관군의 개발로 대양을 통한 동서간의 활발한 해상교통의 발전, 이어진 식민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는 유럽의 경건주의운동과 영국과 미국의 복음주의 대각성운동 등의 영적쇄신운동이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1723년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밀러는 미개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기본적 수단으로서의 중보기도를 주장하고 이후 약 20년 후에는 영국 전역에 식민지의 미개인들을 위한 기도 그룹이 생기게 되었다. 1747년에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갈 것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윌리엄 캐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 출신으로 잘 알려진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1761-1834)를 오늘날 사람들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40여 년의 인도 선교사역 중 수 없이 많은 난관과 고난에 부딪혔으나 끝까지 인도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 노샘프턴(Northampton)에서 한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6세에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구두방 도제로 들어가 28세가 될 때까지 구두 수선공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1781년 20세 때 도로시(Dorothy)라는 구두방 주인 처제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캐리보다 다섯 살이 많았고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 초부터 그들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빈곤과 비참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캐리는 아내와 자식들 뿐 아니라 전 주인의 미양인과 4명의 그의 아이들까지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캐리는 10대에 회심하여 꾸준히 헌신하고 준비하여 목사가 되었고, 1785년 시골의 한 작은 침례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후에 레스터(Leicester)에 있는 좀 큰 교회로 부임해 갈 때까지 그곳에서 헌신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감당할 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당시 영국은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와 요한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의 영적 부흥운동이 전국을 뜨겁게 휩쓸고 있었으나 해외선교에 대해선 누구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캐리도 목회에 전념하느라 마찬가지였습니다. ‘북 선장의 항해기’(Captain Cook’s Voyages, 1768-1771)라는 책 내용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니아인의 외침과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라는 대목에 가슴이

뜨거워져 그의 시야를 세계로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1792년 87페이지의 소책자를 [이교도의 개종을 위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한 조사 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통해 크리스천은 그 소유를 바쳐 이방인을 회개 시킬 책임이 있다고 역설하고 그 해 10월 이 이사야서 54:2-3절 설교로 침례교 외국 선교회를(The Particular Baptist Society for Propagating the Gospel among the Heathen) 조직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라는 유명한 말은 그후 캐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대변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1793년 6월 13일 캐리는 온 가족과 함께 인도로 향하는 덴마크 배에 올랐고 5개월의 힘겨운 항해 끝에 11월 19일 인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현지의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는 영국 동인도회사(British East India Company)는 인도에서의 선교활동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인도회사는 캐리 일행이 콜카타(Kolkata, the capital of India’s West Bengal state 켈커타의 영국식 발음을 인도식으로 변경하여 오늘날은 콜카타로 읽는다)로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리 일행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인도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로시와 큰아이 둘이 심한 병에 걸려 캐리는 이들을 간호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후에 캐리는 450km 인도 북쪽에 있는 말다(Malda)로 가서 한 농장의 지배인 자리를 얻었습니다. 캐리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말을 배우고 전도할 수도 있어 좋아했지만, 가족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내 도로시의 건강과 정신병이 깊어지던 중 1794년 총명한 눈을 가졌던 5살 된 아들 피터(Peter)가 죽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도로시는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 51세에 죽을 때까지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 중에도 그는 날마다 성경 번역하는 일을 계속했으며 열심히 벵갈(Bengal)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795년 최초로 인도에 벵갈 원주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7년 가까이 벵갈 원주민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었지만 정작 인도인은 단 한 명의 개종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캐리는 본국으로부터 그를 돕기 위한 새로운 선교사들이 오자 동인도회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팔카타 가까이 있는 덴마크령 세람포(Serampore)로 선교본부를 옮겼습니다. 세람포는 곧 영국 침례교회 인도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캐리와 그의 동역자인 조슈아 마쉬맨, 윌리엄 워드는 세람포의 3인(Serampo Trio)이라고 불립니다. 세람포 선교본부에는 10명의 선교사와 9명의 아이들이 함께 숙식을 했는데 마치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을 분담하였으며 선교사역을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세람포에서의 성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첫째는 캐리의 높은 인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선교의 업을 수행을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그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선교 비를 유용하여 피해를 끼친 토마스에 대해서도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무런 문제 없이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람포는 성공적인 선교 팀의 모범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지속적인 도전이 그림 없는 열정을 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캐리는 여기서 벵갈어, 산스크리트어, 마라디어 3개 언어로 성경을 완역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언어로 성경이 완역되는 것을 돕고 또 다른 많은 언어와 방언들로 신약성경과 족 복음을 번역했습니다. 힌두어, 마하라스티아어, 오리아어, 텔링가어 등 인도 방언들과 보타어, 버마어, 중국어, 말레이어 등 44여 개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람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세람포에 선교회가 세워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첫 번째 개종자가 생겨 모두를 기뻐했습니다. 계속 개종자가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캐리가 인도 선교를 시작한 지 25년이 지난 1818년 무렵 약 600명의 침례를 받은 교인들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추진해 나갈 도구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의 일생 중 가장 큰 업적은 교회 지도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1819년 세람포 대학(Serampore College)을 세운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학교는 37명의 인도인 학생으로 개교하였는데 그중 절반이 기독교인 이었습니다. 그가 교육 분야에서 이론 또 하나의 업적은 세속 교육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람포에 온 직후 켈커타에 있는 포트 윌리엄 대학의 동양어과 교수로 초빙되었다. 결과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선교비를 충당하였으며 동인도 회사에 대해서도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언어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1807년 도로시가 세상을 떠나고 캐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람포에 요양과 있던 덴마크 왕족 출신의 살로테 루머(Charlotte Rumohr)를 알게되었습니다. 원래 불신자였던 그녀는 회심하여 1803년에 캐리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시간과 재산을 선교사역에 아낌없이 바쳤습

니다. 1808년 캐리는 살로테와의 약혼을 발표하고, 선교팀에 커다란 파문이 일었지만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1821년 살로테가 먼저 떠날 때까지 13년 결혼생활은 꿈같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캐리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언어에 탁월하여 성경 번역에 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깊은 사랑을 주었다고 합니다. 캐리는 1834년 73세에 소천 하였는데 40년 동안 한번도 조국 영국 땅을 다시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인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삶의 거의 모든 부분 언어학, 식물학, 교육계, 사회변혁, 인쇄술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의 개척자가 희생적으로 자신과 가정을 드려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역 우선의 선교적 희생은 한국 교회 선교역사 가운데도 동일하였습니다. 한국선교의 개척자들도 대부분 가정과 사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쳐서 선교사역에 열중하였던 것을 압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화전에 묻어야 했던 선교사 가정들과 젊은 나이에 풍토병과 다양한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했던 선교사들은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그들에게 제국주의자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들의 희생은 쉽게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두고 항상 시키고자 했던 것을 문화적 우월감이나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초기의 선교사들은 희생하는 사람들이며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개인의 일보다는 복음전파를 위해 무엇이라도 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난의 여정에서 개척자의 길을 불굴의 의지로 돌파한 헌신의 모범이었습니다.

dr.yongcho@gmail.com

C.S 루이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다원화 사회 선교에 준비된 바울과 C.S. 루이스(1)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프랑스 기독교(Protestant)를 대표할 만한 기독교 사상가다. 그는 사회학자요 법학자이면서도 비중 있는 신학 서적을 출판한 신학자다. 자크 엘룰은 풍부하고 방대한 신학 사상으로 20세기 교회를 깨운 신학자다. 특히 그는 현대 교회가 직면한 위기상황과 선교적 한계를 지적하고 통찰력 있는 대안을 제시한 학자다.

자크 엘룰은 복음의 침투력을 잃어버린 현대의 상황을 지적한다. 사회학자인 그는 “복음이 전투력을 상실했다(The Gospel no longer penetrates).”라며 현실을 아파한다. 아울러 그는 복음이 세상에 침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자크 엘룰은 복음이 벽에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기독교 후기(Post Christianity) 사회

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지적하면서 복음주의의 교회가 기독교 후기 사회의 특징을 간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우리는 소위 “후기 기독교 세계(Post-Christendom) 혹은 기독교 후기 시대(Post Christianity)”를 지나고 있다. 둘다 같은 말이다. 기독교 세계(Christendom)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를 뜻한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는 서구 문명을 지배해 왔다. 그런데 20세기를 보내며 기독교는 그 영향력을 현저하게 상실해 버렸다.

현대 사회, 즉 후기 기독교 세계는 다원화 사회다. 다문화, 다종교의 문화적 현상이 현실이다. 절대적 가치를 거부하는 이 시대는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기독교 진리를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현대 젊은이

들과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떠나거나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기독교 문명국의 일반적 현상이다. 현대 기독교가 위기를 맞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다원화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상황을 극복한 경험을 가진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다.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했던 사람이 많지만, 사도 바울과 C.S. 루이스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원화 상황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두 사람의 연구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설명이 필요 없는 다문화 다종교 사회 선교사였다. 갈릴리 반방의 소수 유대인이 파란던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이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 아직도 복

음을 전한다. 기독교 선교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의 선교전략과 메시지는 현대 선교의 원리요 전거(典據)다.

반면에 C.S. 루이스는 이미 기독교 후기 시대에 돌입한 영국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루이스가 BBC 방송국에서 방송 강연을 시작할 때 영국 공군 신병 중에 부활절의 개념을 이해하는 젊은이가 23%에 불과했다. 전쟁중임에 고려하면 너무 낮은 신자율이다.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과 1차 대전을 겪으며 영국을 포함한 유럽 사회는 이미 후기 기독교 사회로 진입했다.

탁월한 전도자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후기 기독교 사회 돌입한 영국과 유럽 사회를 복음으로 흔들었다. 회의주의자들과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는 당대에 많은 지성인과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했고 그의 영향력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의 사후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루이스는 여전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후기 기독교 시대(Post Christianity)의 속성을 경화하는 사조가 포스트모더니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상대주의다. 절대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거부한다. 모든 생각과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

옳다는 사조다.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 전도가 심각한 어려움을 만난 것이다.

이런 상대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현상이 바울이 방문했던 아테네였다. 아테네 정신의 요람이요 새로운 학문의 발표장이었던 아레오바고에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했다. 아레오바고의 원칙이 새로운 견해를 가진 사람의 새 견해를 듣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아테네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바울의 아테네 선교를 살피면 선교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다. 교육도시요 스토아 철학의 요람인 다소(Tarsus)에서 성장한 바울은 스토아 철학과 헬라 수사학을 습득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성경을 공부했던 바울은 구약을 습득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1세기 다문화 다종교 사회 선교사로 온전하게 구비(具備)하였다.

C.S. 루이스 생애를 살펴보면 준비된 선교사 사도 바울과 겹친다. C.S. 루이스는 절묘한 시점에 성장하고 활동했다. 그 시기는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기였다. 아울

러 1차 대전이 이어 유럽 사회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유행성 독감의 등장으로 패배감과 회의주의 사상이 지성인과 젊은이들을 장악했다. 절대 가치를 거부하는 상대주의 사상이 팽배했다. 서구사회를 지배했던 기독교 영향력이 급격히 하락해 다종교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C.S. 루이스는 인생, 사회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로 신음하던 유럽이 2차 대전의 발발로 더 좌절하던 시기에 복음을 전했다. 루이스를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와 전도자로 인정받게 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나 <순전한 기독교>가 2차 대전 중에 출판되거나 방송되었다. 루이스는 2차 대전 후에 더욱 냉소적으로 바뀐 영국과 유럽 사회에 인생과 천국의 소망을 전했다.

C.S. 루이스는 평생 열심히 독서했고 많은 글을 남겼다. C.S. 루이스의 모든 활동은 기독교를 변증하고 복음을 전도였다. 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닮았다. 틈만 나면 자신의 인문학적 소양을 활용해 13개 서신을 기록해 복음을 전한 바울의 얼굴에서 틈만 나면 글을 쓰고 출판해서 40여 권의 저서로 복음을 전한 C.S. 루이스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Kangtg1207@gmail.com

기쁘다 귀국하셨네

뉴욕그레이트넥교회
담임목사: 양민석

715 Northern Bl.,
Great Neck, NY, 11021
Tel. (516)466-8063

뉴욕동원교회
담임목사: 박희근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Tel. (718)321-9199

뉴욕만나교회
담임목사: 정상철

170-0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Tel. (917)750-817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917)373-3411

뉴욕선교로교회
담임목사: 김경수/박병섭

67-02 Woodside Ave,
Queens, NY 11377
Tel. (718)490-6316
www.lmcony.org

뉴욕성실장로교회
담임목사: 차석희

45-31 220th Place,
Bayside NY 11361
Tel. (646)641-2247

뉴욕수정교회

25-67 College Point Blvd,
Flushing, NY 11354
Tel. (718)461-9800

뉴욕심포니교회
담임목사: 신동기

42-70 156th St,
Queens, NY 11355
Tel. (646)339-0196

뉴저지 열린문 교회
담임목사: 허민수 목사

150 Park Ave,
Leonia, NJ 07605
Tel. (201)944-6747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욕좋은교회
담임목사: 정인수

61-72A 223rd Place #23A
Bayside, NY 11364
Tel. (646)238-4883

뉴욕주은혜장로교회
담임목사: 임병순

46-17 160st #1F
Flushing, NY 11358
Tel. (917)767-919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Tel. (718)762-5756
www.hyoshin.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Tel. (303)422-695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 (610)222-0691
Fax. (610)222-0692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Tel.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 (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센터빌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차용호

25454 Gum Spring Rd,
Chantilly, VA 20152
Tel. (703)581-9235
www.koreanpcc.org

시애틀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목사: 우광필

17800 36th Ave. W.,
Lynnwood, WA. 98037
Tel. (425)510-8526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45-02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1904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10 Oak Street,
Orangeburg, NY 10962
Tel. (845)359-1458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주안예교회
담임목사: 임영건

4021 159th St #1,
Flushing, NY 11358
Tel. (631)327-8046

지역교회부흥선교회
대표: 허윤준 목사

Tel. (718)637-147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www.kapcq.org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 (253)536-6675
www.tacomacrc.com

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삼

100 Herrmann Pl,
Yonkers, NY 10710
Tel. (914)961-9250
www.nydongsan.com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7)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도구 활용

Generative AI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종류와 목회와 선교적 활용 (6편)

8. Text to Video (TTV) AI 기술

Text to Video (TTV) 도구는 텍스트 입력을 통해 비디오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TTI(text to image)와 비교하면 상당한 기술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은 텍스트를 비주얼과 오디오로 변환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목회와 선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ChatGPT와 같은 텍스트 생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이디어 혹은 메시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반으로 영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만들어진 Text를 기반하여 비디오 제작이 가능하다.

Synthesia (<https://www.synthesia.io>) 도구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AI로 생성된 아바타가 해당 내용을 읽으며 비디오를 제작해주는 TTV 플랫폼이다. 전문 촬영 장비 없이도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고품질의 비디오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사람을 기반으로 하거나 커스텀 제작 가능한 아바타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140개 이상의 다국어 및 음성 지원이 가능하여 전 세계 청중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로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비디오가 자동 생성해 준다. 이와 함께 사전 설정된 비디오 템플릿 활용이 가능하며 로고, 색상, 폰트 등을 커스터마이징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작업 가능하며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정 가능하다. Synthesia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월 비용이 발생한다.

Pictory AI (<https://pictory.ai>)는 텍스트, 스크립트, 또는 기존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고품질 비디오를 생성하는 AI 기반 비디오 제작 플랫폼으로 비디오 제작 과정이 간소하다. 사용자는 스크립트를 업로드하거나 간단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다. 드래그 앤 드롭 편집으로 복잡한 비디오 편집 지식 없이도 콘텐츠를 수정 및 편집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긴 영상을 활용하여 주요 장면을 추출해 짧은 클립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또

한 자동장면 전환, 자막 추가, 시각적 효과를 제공해 준다.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비교적 낮은 비용이며 여러 사용자들이 협력해 콘텐츠를 편집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Descript (<https://www.descript.com>)는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의 녹음, 편집, 스크립팅, 그리고 협업을 혁신적으로 간소화하는 올인원 도구로 팟캐스트, 영상 제작, 콘텐츠 편집 작업을 위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 즉 비디오와 오디오 편집을 스크립트 텍스트 수정으로 간단히 편집이 가능하다. 또한, AI가 사용자의 음성을 복제하여 추가 녹음 없이 대사를 수정하거나 추가 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와 함께 배경 소음과 음성의 불균형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노이즈 제거 기능과 음성 톤 및 음질 향상 시키는 오디오 미세 조정 기능이 있다.

InVideo (<https://invideo.io>)는 템플릿 기반의 비디오 편집 도구로, 긴 영상을 요약하여 짧은 클립으로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비디오 제작 플랫폼이다. 영상 제작의 복잡한 과정, 특히 편집과 제작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하여, 사용자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고품질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활용하여 비디오 요약, 템플릿 사용, 텍스트 오버레이, 오디오 추가를 통해서 비디오 제작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InVideo AI는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 가능하며, 마케팅, 교육,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매우 유용하다.

Runway ML (<https://runwayml.com>)는 창작 및 비디오 편집을 위한 AI 기반 도구로, 주로 비주얼아티스트, 디자이너, 비디오 제작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Runway ML은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음악을 처리하는 다양한 AI 모델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창의적인 작업을 지원한다. 모션트래킹 및 객체 인식기능으로 비디오의 특정 부분을 더 세밀하게 수정하거나 효과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 스타일 변환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의 이미지를 특정 예술 스타일이나 다른 시각적 스타일로 변환할 수 있다. 특별히 딥페이크 및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거나, 얼굴을 추적하여 실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지원한다.

dr.jameskoo@yahoo.com

매일가정에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순종 (삼상 15:1-15) 찬347장

사울이 왕이 된 후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말씀 순종에 주목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죽이라 했는데 사울은 즐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무척 슬퍼했으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말한 것은 영적 둔감 상태를 보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첫째, 마음 맡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데 급급함은 가난한 마음이 상

실된 증거입니다. 회개가 안 되고 은유함이 없고, 의를 사모함도 없었습니다. 둘째,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감하는 죄악은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말씀 순종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작은 일부터 충성합니다. 작은 말씀 순종에 실패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 제사보다 나은 순종 (삼상 15:16-35) 찬281장

순종 자에게 외적 복이 임하나 사실상 순종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는 것은? 첫째, 제사의 본질이 순종이란 뜻입니다. 종교의 씨를 가진 제사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참 종교는 참 대상에게 모든 것을 드려 순종의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순종의 마음에 응답의 불이 임합니다.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탐욕의 불이 타올랐으나 순종하는 사무

엘의 마음에 성결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탐욕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골3:5). 셋째, 순종이 가장 정상적인 삶이란 뜻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순종이기에 순종하는 마음 없이 형식으로 드러지는 제사는 하나님을 가증여 기는 제사입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 지배하는 삶으로 일관합니다. 거기에 복이 임합니다.

수 승리의 비밀인 순종 (삼상 16:1-23) 찬388장

본문은 다윗의 소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땠습니까? 첫째, 순종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심이 오늘날도 변치 않습니다. 순종은 신앙 승리의 비결입니다. 둘째, 순종의 중심을 가진 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

씀에 순종하는 중심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순종자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개별적으로 기름이 부어졌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와 기술과 용맹이 출중한 은사가 임했습니다. 무수한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뿐입니다.

목 불순종의 위험 (삼상 17:1-11) 찬337장

하나님 경의를 잃어버린 사울은 무기와 대군을 보고 불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불순종의 마음에는 담력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은 후회는 했어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먼저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마음이 여기서 시작되

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는 마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문제를 아릴 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중압감이 몰려올 때라도 순종할 때 소망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치명상을 주는 불순종을 몰아냅니다.

금 능력의 원천인 순종 (삼상 17:12-27) 찬377장

왜 순종이 능력의 원천인가요? 첫째, 순종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순종 없는 믿음은 마귀의 믿음이며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 기도만이 문제의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둘째, 순종은 능력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담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듯없이 믿은 순종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셋째, 순종의 그

늘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릴 때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윗의 순종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는 은혜가 떠나갑니다.

토 다윗의 예민한 영감 (삼상 24:1-22) 찬175장

본문은 사울의 살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에 예민한 모습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첫째, 원수인 사울을 죽이는 기회를 선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울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권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기에 최소한 은혜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귀히 여긴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둘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하여

김은 말씀과 깊이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자락을 베어도 마음에 찔림을 당한 다윗은 하나님과 내적 연합으로 깊이 연결된 것을 증거 합니다. 혈투증 여인에게 주님 능력이 임하자 즉시 치료를 느낀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은 살아있는 진리의 교통이 예민하게 일어납니다. 예민한 영적 교감을 갖기 위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한글가족
중앙
장의회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한글 가족, 중앙 장의회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 샌퍼드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 윗지점도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기쁜다- 구독하셨네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 (714)521-4636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일철 3523 Johnson St High Point, NC 27265 Tel. (336)841-8439 www.kpcgnc.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홍철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el. (213)481-2779 www.srcla.org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9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www.bkc.org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목사 Tel. (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 (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 (323)-737-3009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Tel. (714)646-9259 ww.socalsamsungchurch.org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 (310)530-8400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G100 Honolulu HI 96817 Tel. (808)585-1859

빛나라 북한 만나선교 후원회

Arise Mission Church - Manna for North Korea

북한 가족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냅니다. 이미 추위가 시작된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빛나라 선교교회 (탈북민 교회)에서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빛나라 북한 만나선교 후원회 (Manna for North Korea)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325199505638
전화번호: (310) 508-3899